

우리 민족끼리의 숭고한 리념에 토대하여 북남관계 발전과 자주통일의 새 전기를 열어나가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오늘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나라의 통일을 위한 목결 많은 투쟁사에 획기적 전환의 시대를 열어놓았던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17돐을 깊은 감회속에 맞이하고 있다.

분렬사상 처음으로 북남수뇌들이 평양에서 뜨겁게 손을 맞잡고 6.15공동선언의 채택을 선포하시던 그날의 감격적인 화폭은 지금도 우리의 눈앞에 생생히 살아있으며 북남삼천리에 메아리치던 통일 만세의 우렁찬 함성은 겨레모두의 가슴을 세차게 뒤흔들고 있다.

외세가 쌓아놓은 분렬의 장벽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허물어버리고 불신과 적대의 살풍이 몰아치던 대결의 강토에 화해와 단합, 평화와 번영의 화원을 펼쳐려는 숭고한 뜻과 의지에 떠받들려 탄생한 6.15공동선언은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변함없는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북과 남이 새 세기 통일리정표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곧바로 달려왔더라면 온 겨레가 일일 천추로 갈망하던 조국통일의 대문이 활짝 열렸으리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우리 민족의 통일을 한사코 가로막으려는 미국과 그 배후조종하에 련이어 출현한 친미보수 《정권》들의 필사적인 대결망동에 의해 화합과 번영의 길로 전진하던 북남관계는 멀리 후퇴하여 완전파국에 이르렀으며 것처럼 자랑스럽던 6.15시대는 흔적조차 찾기 어렵게 되었다.

통일의 제단에 땀 한방울 없기는 고사하고 민족이 가는 앞길에 무수한 차단벽을 덧쌓으며 역사의 시계 바늘을 거꾸로 돌려놓은 리명박, 박근혜역도의 만고죄악은 천만년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엄정하게 결산될 것이다.

남조선에서 사상 류례없는 전민항쟁이 일어나 박근혜 《정권》이 가장 비참한 종말을 고한것은 민족을 배신하고 민심을 거역하며 통일을 부정한 친미대국역적들에게 내려진 응당한 징벌이고 준엄한 경고이다.

나라의 통일과 북남관계 발전을 절절히 념원하는 인민들의 대중적투쟁에 의하여 남조선에서 극적인 《정권》 교체 가 이루어진 오늘 내외의 관심은 북남당국의 새로운 결단과 선택에 쏠리고 있다.

반통일무리들이 기승스럽게 날뛰던 지난 9년간의 폐해를 하루속히 극복하고 자주통일의 융용한 대화가 다시금 백두에서 한나로 힘차게 흐르기를 온 겨레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열망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6.15공동선언 발표 17돐에 즈음하여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의 한결같은 기대와 념원에 맞게 북남관계 발전과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안아올 확고한 의지로부터 다음과 같은 원칙적립장을 다시

금 천명한다.

1. 이 땅에 래를 묻은 사람이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자주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 들고 북남관계 발전과 조국통일사업에 헌신하려는 투철한 립장을 가져야 한다.

민족자주는 통일문제 해결의 근본 담보이며 기본원칙이다.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복잡하고 첨예할수록 민족문제, 통일문제 해결에서 자주 기치를 더욱 높이 들어야 하며 외세의 간섭과 전횡이 우심할수록 우리 민족끼리 더욱 굳게 손잡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 조국통일실천이 보여주는 절대적 진리이다.

남조선에서 보수패당이 집권하였던 지난 9년간 북남관계가 최악의 파국을 면치 못한것은 전적으로 그들이 민족우에 외세를 올려놓고 민족의 리익보다 외세와의 공조를 중시하며 자주로선이 아닌 친미굴종정책에 로골적으로 매달려왔기 때문이었다.

그 어떤 외세도 우리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어 강성해지는 것을 절대로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 민족분렬의 장구한 력사가 남긴 뼈저린 교훈이다.

조선반도의 통일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란폭한 불청객이고 집요한 훼방꾼이며 진짜 주적인 미국을 등에 업고 그에 추종하는 길로 나간다면 언제 가도 조국통일대업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은 우여곡절속에 흘러온 북남관계 현실이 그대로 증명해주고 있다.

하지만 남조선의 새 당국자들은 이 쓰라린 교훈을 망각하고 집권 첫 날부터 온당치 못한 언행을 일삼으며 벌써부터 북남관계의 전도를 심히 흐려놓고 있다.

큰 나라들에 무력대고 굽신거리며 《특사외교》니, 《전화외교》니 하고 비위를 맞추는데 급급하는가 하면 《한미동맹강화》를 매일같이 부르짖으며 목숨이 간들거리는 백악관 주인을 찾아가 눈도장이나 찍을 구차스러운 행각준비에 만사를 제쳐놓고 허둥대고 있다.

이 시각에도 미국의 정계와 의회, 군부 등 각계에서 형형색색의 어중이떠중이들이 번갈아 서울에 날아들어 청와대가 저들의 손탁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공공연한 길들이기를 일삼고 있지만 남조선당국자들은 상전의 눈에 덧날가봐 바른소리 한마디 못하고 극진한 환대와 발라맞추기에 전전공공하고 있다.

이 나라, 저 나라에 《정권》유지를 구걸질하며 창녀짓을 일삼던 박근혜때와 오늘이 달라진 것이 과연 무엇이랄 말인가.

조국통일은 그 누구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며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더욱 아니다.

만약 현 남조선집권자가 진실로 초분민심의 대변자라면, 진정 조선 민족의 피와 땀이 흐르는 인간이라면 민족자주와 인연이 없는 주점스럽고 가공한 노릇부터 그만둘 용단을

내려야 마땅할 것이다.

오늘날 시대는 완전히 달라졌으며 통일문제 해결의 주도권은 그 어떤 외세가 아니라 우리 민족자신의 손에 확고히 쥐여져 있다는 것을 남조선 당국자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입으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를 운운하면서도 실제로는 친미사대의 구태와 굴종의 사슬에 얽매어 제 마음대로 한발자국도 움직일 자신을 가지지 못한다면 북남관계도 통일문제도 절대로 풀어나갈 수 없다.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지나온 력사가 새겨준 피의 교훈이다.

남조선당국은 자주나 외세 추종이나, 우리 민족끼리나 《한미동맹》이나 하는 중대기로에서 올바른 결심을 내려야 하며 바로 여기에 북남관계와 통일문제 해결의 전도가 달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2. 남조선당국은 동족을 적대시하는 대결관념에서 벗어나 민족의 단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것을 절대불변의 진리로 받아들일 때 통일의 길이 열리고 민족의 창창한 미래가 펼쳐진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통일위업은 그 자체가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대업이다.

민족대단결이자 곧 조국통일이며 통일강국이다.

조국통일의 큰 뜻을 앞에 놓고 사상과 제도, 리념과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단합하고 단결하자는 것이 우리의 일관한 의지이다.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서로 용납하려 하지 않고 자기의 것만을 절대시하면서 타방에 강요하려 한다면 민족내부의 대결은 더욱 격화되고 충돌과 전쟁을 면할 수 없다.

몽치면 강성할 수 있지만 갈라지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응당 동족에 대한 적대적관념부터 털어버려야 하며 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려정에 들어서야 한다.

그러나 현 남조선당국은 보수 《정권》 시기 그어놓은 동족대결의 《붉은 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의연히 《북정권과 군은 우리의 적》이라느니, 《제재와 압박공조를 이어가겠다》느니 하고 떠드는 한편 보수패당이 추구해온 《북체제붕괴》의 간악한 수단과 방법을 계속 우려먹을 불순한 속심도 꺼리낌없이 내비치고 있다.

이야말로 결투쟁만 달리하였을 뿐 내용에 있어서는 과거 《정권》이 추구한 대결정책의 복사판이라고밖에 달리는 볼 수 없다.

로골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현 《정권》 역시 전면적인 동족대결로 나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동족대결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 정책을 통채로 받아들인 매국배족적 처사이며 제재와 압박은 반공화국적대의 집중적인 표현이다.

따라서 제재와 대화, 압박과 접촉의 그 무슨 《병행》에 대하여 떠들며 관계개선을 운운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추태이며 명백히 자기 기만이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북과 남이 상대방을 통일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서로 손잡고 나가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지평을 열자는 것이지 결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기피하고 몇몇 민간단체들이나 오고가며 과거와 무엇이냐 달라졌다는 뉘세나 피워보자는 것이 아니다.

이런 오그랑수는 백해무익하며 오히려 화를 더 키울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우리를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겠다면, 지금처럼 동족을 겨냥한 대결과 적대의 주먹을 굳이 펴지 않겠다면 우리 역시 강요할 생각이 없다.

체제대결의 끝은 물리적 충돌이며 부득불 비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로 나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은 책임적인 선택을 하여야 할 것이다.

3. 조선반도의 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부터 시급히 취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립장임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이며 이는 조국통일의 필수적 전제이다.

이 땅의 평화보장을 위한 우리의 헌신적이고 인내성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선반도는 사상 류례없는 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에 놓여있으며 언제 어디에서 핵전쟁의 불꽃이 튀기겠는가를 그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더우기 남조선에서 친미보수 《정권》이 무너지고 북남관계 개선과 통일을 바라는 전민적 관심에 고조되는데 질첩한 미국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방대한 핵전쟁무력을 련이어 들이밀어 최대규모의 전쟁연습을 매일같이 벌여놓으면서 군사적 긴장을 최극단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문제는 임기내에 조선반도 평화의 《획기적 전기》를 만들겠다고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는 현 남조선당국자들이 동족의 핵무력강화조치를 계속 걸고들며 미국의 날강도적인 침략전쟁도발책동에 적극 가담하고 있는 것이다.

남조선의 새 《정권》은 들어서기 바쁘게 조선반도수역에 미국의 핵동력항공모함라격단을 동시에 2개나 진입시키는 사상 초유의 위험천만한 사태를 빚어내고 《B-1B》와 같은 핵전략폭격기편대와 핵동력잠

수함을 비롯한 핵타격수단들을 남조선에 빈번히 끌어들여 동족을 해치는 침략전쟁연습을 더욱 광란적으로 벌리고 있다.

현 사태를 보면 남조선집권자가 떠드는 《영구적인 평화와 번영》은 고사하고 핵전쟁의 재앙을 피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것이 내외의 한결같은 우려이다.

오늘과 같은 엄혹한 정세에서 평화는 침략자에 대한 양보나 굴종이 아니라 오직 그 어떤 강대한 적도 단말에 타승할 수 있는 자위적함에 있다.

세기와 년대를 넘으며 악랄하게 지속되어온 미국의 핵위협과 공갈, 침략전쟁도발책동을 더이상 용인할 수 없어 우리가 마련한 것이 핵무력을 중추로 한 세계최강의 자위적억제력이다.

우리는 평화를 누구보다 원하고 온 겨레가 또다시 전쟁의 참화를 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끝끝내 무분별하게 덤벼든다면 정의의 핵보검으로 침략자들을 그 아성까지 초토화해버릴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가까이에 있는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을 박멸하는 것은 물론 대양 건너 미국본토에 등지를 틀고 앉아있는 침략자들의 눈깔까지 파먹을 수 있게 정밀하게 빈틈없이 준비된 우리의 핵타격수단들이다.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평화를 원한다면 조선반도 평화의 가장 공고하고 현실적인 담보인 우리의 자위적 핵무력을 무지하게 걸고들 것이 아니라 미국의 침략적이며 호전적인 망동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부터 취해 나가야 한다.

특히 서해열점지역에서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고수하겠다고 무모한 군사적도발행위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아야 하며 군사분계선일대를 비롯하여 지상, 해상, 공중에서 무력충돌위험을 제거하고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실천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지금 남조선당국은 우리와 대담하게 손잡고 북남관계를 풀어나감으로써 민족사에 긍지로운 자욱을 남기느냐 아니면 외세의 눈치를 보며 주저하고 망설이다 선임자들의 비참한 전철을 밟느냐 하는 운명적 갈림길에 서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당당한 핵강국, 로켓트맹주국의 확고한 지위에 올라선 오늘의 새로운 국면에 맞게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이룩하여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립장은 확고부동하다.

우리는 이 기회에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철저히 구현하여 때를 놓침이 없이 북남관계 개선과 자주통일의 새 전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더욱 과감히 떨쳐나설 것을 열렬히 호소한다.

인 민 사 랑 의 샘 줄 기

지난 6월초 강서약수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사람의 건강에 좋은 강서약수가 줄줄이 생산되어 나오는 광경을 보시고 기쁘시여 환하게 웃으시었다.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약수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것은 사회의 모든 재부가 철두철미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달려지는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신 그이의 말씀에서 사람들은 인민을 제일로 위하는 절세위인의 숭고한 세계가 어려와 걱정을 금치 못하였다.

산 좋고 물 맑은 이 땅에는 인민들의 건강과 장수에 이바지하는 좋은 약수와 온천들이 많다. 그중에서도 강서약수는 pH가 6.0아래로 약산성으로서 소화기관의 분비 및 흡수, 운동기능을 높이고 담즙형성 및 배설을 촉진시킬뿐 아니라 물질대사를 개선하고 조절기능을 높이는 등 사람들의 건강과 치료에 특효가 있는것으로 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강서약수가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약수로 될수 있는것은 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돌이켜보면 약수가 발견된 후 오랜 세월 이곳은 착취자들의 유혹터로 되어왔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신 때로부터 이곳의 풍경은 새롭게 변모되었다.

주체36(1947)년 겨울 눈덮인 눈두렁길을 걸으시여 이곳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끝없이 샘솟는 약수의 물맛을 보시고 약수가 참 좋다고 하시며 약수터를 잘 꾸려 인민들이 유명한 이 약수를 마시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약수가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널리 이바지하도록 여러차례 가르쳐주신 수령님께서서는 약



강서약수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수공장건설을 맡기하시고 몸소 터전까지 잡아주시었다.

약수를 마시며 기뻐할 인민들의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시며 약수의 려과, 탄산가스주입, 상표붙이기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강서약수》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신 아버지수령님의 그 사랑에 떠받들려 강서약수공장이 일떠섰다.

아버이수령님의 이민위천의 숭고한 뜻을 그대로 이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강서약수공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더욱 훌륭히 꾸리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었다.

2011년 3월 강한 지각올림 현상으로 강서약수샘줄기가 사라지게 되었을 때에는 약수를 기어이 찾아내도록 긴급대책을 세워주시면서 이미 있던 샘줄기에서 약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대담하게 비저항 CT탐사를 하여보고 다른 곳에 추공을 할데 대한 묘리도 밝혀주시었다.

하여 약수가 사라진 때로부터 60일만에 원래보다 용출량도 많고 질도 높은 강서약수가 다시 뿜어져나올수 있었다.

이렇듯 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인민사랑이 깃든 약수이기

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 찾으신 그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샘줄기가 영원토록 흐르게 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을 끝없이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우리 조국의 여러곳에서 인민사랑의 샘줄기가 영원히 흐르고 있는것이다.

주체105(2016)년 9월 룡악산 샘물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장군님의 은정속에 장수샘물로 이름높

은 룡악산샘물이 사시장철 평양시민들에게 가닿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생산정상화와 생산된 제품수송에서 나서는 문제, 유리병용기의 색깔과 형태를 표준화, 다양화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 등 공장에서 해결하여야 할 새로운 과업과 방도를 가르쳐주시었다. 그러시면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것은 사회의 모든 재부가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달려지는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었다.

지심깊이의 샘줄기가 그대로

물허있게 하거나 땅우로 용출되는 샘이 강이나 바다로 그냥 흐르게 할것이 아니라 인민들에게 가닿도록 하시려는 그이의 인민사랑의 로고와 심혈이 어린 가르치심이였다.

맛 좋고 수질이 좋은 물을 인민들에게.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의 방방곡곡에 수질이 좋은 천연샘물이 대단히 많다고 하시면서 각 지방들에서도 샘물생산공장을 들 건설하여 인민들이 덕을 보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시는 그이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깊은 관심속에 심장부담과 소화장애해소, 원기회복에 좋다는 마식령샘물도, 오래전부터 맛이 좋아 해방전 일제가 술공장을 차리고 략탈하던 마식령산줄기의 대화봉샘물도 오늘 인민들을 위하여 대량생산되고있다.

세상을 둘러보면 12억에 달하는 인구가 물부족을 겪고있으며 80여개 나라에서 물자원이 부족하고 20억의 인구가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음료수를 리용하고있다는 평가자료가 있고 물은 원유보다 더 귀중한 자원이라고 분석한 자료도 있다. 오늘의 세계는 인류에게서 최대의 도전은 물위기라는것을 보여주고있는것이다.

세계적인 물자원고갈로 많은 나라들에서 사람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있는 이때 공화국에서는 사람들 누구나가 약수와 샘물의 덕까지 크게 보고있으니 진정한 인민을 제일로 위하시는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시여 누리려는 행복이 아니겠는가.

인민들이 무병장수하며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향유하도록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민현신의 령도가 있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의 혜택속에 행복한 삶을 누려가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대조선핵공갈책동에 대처하여 공화국은 자위적억제력을 비상히 강화하여 국가의 자주권과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있다.

세기를 이어 계속되는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안아올 강위력한 타격수단들을 개발완성하도록 이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나라의 방위력은 더욱더 백방으로 다져지고있다.

최근 공화국에서는 새로 개발한 신행지상대해상순항로켓 시험발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4월 태양절정축 열병식 광장에서 선을 보인 다중화된 타격수단중의 하나인 신행지상대해상순항로켓은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타격을 기도하는 적함선집단을 지상에서 타격할수 있는 공격수단이다.

신행지상대해상순항로켓 시험발사를 통하여 무한계도식자행발사대차에서의 순항로

켓의 발사관리탈특성과 발동기들의 시동특성, 초저공순항 비행체제에로의 신속한 진입특성들을 확증하였으며 초저공장거리순항비행체제에서의 비행안정성, 여러가지 비행경로에 따르는 기동특성, 탄상복합유도머리의 목표포착 및 유도정확성, 적아식별특성, 목표진입시 급격한 고도이행능력을 검토했다. 또한 발사준비과정

을 악화시킬뿐이다.》느니 뭐니 하면서 아부제기를 쳤다. 군사전문가들은 《최근 발사하는 로켓들은 이전것들과 질적으로 다르다. 최근 북의 탄도로켓들은 비약적인 발전면모를 보여주었다.》고 하였다. 핵타격능력이 크고 강할수록 침략을 억제하는 힘은 그만큼 더 커지기마련이다. 적들이 해상이면 해상, 지상이면 지상,

의 위력으로 핵전쟁의 재난을 몰아오는 악의 근원을 송두리채 제거해버리고야말것임을 실천으로 보여준것이다.

신행지상대해상순항로켓 시험발사를 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최근에 국방과학부에서 초정밀화, 최첨단화된 지상, 해상, 공중무기체계들을 광범 개발하여 우리 공화국의 실제적인

을 통하여 미국이 끝끝내 전쟁을 강요한다면 그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기꺼이 상대하여 침략의 본거지들을 생존불가능하게 모조리 초토화해버릴수있는 능력과 막강한 힘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난 5월 중순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 시험발사의 대성공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

국의 영원한 독점물로 되지 않을것이며 우리도 상응한 보복수단을 쓸수 있는 날이 올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하시면서 미국은 그 기회에 조선의 탄도로켓들이 미국에 실지로 위협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하는것을 속시원히 보면 될것이라고 하시었다.

우리 조국은 지난날 봉건의 수레가 삐걱거리던 세기적락후의 질곡속에 화승총조차 변변히 없어 대포와 기관총을 쏘며 달려드는 왜적에게 끝내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면 안되었던 어제날의 조선이 아니며 제국주의강적도 《가장 두려운 상대》, 《급격히 떠오르는 적》이라고 하며 감히 범접을 못하는 천하무적의 강국이다.

만약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이 경거망동하며 이 땅에 전쟁의 불꽃을 날린다면 만장약된 공화국의 핵타격수단들은 침략자, 도발자들을 단호하고 무자비하게 격멸소탕할것이다.

김정혁

멸적의 뒤흔을 울리는 불패의 자위적억제력

에 새로 개발한 무한계도식자행발사대차의 기동특성, 전투진입에로의 진입과 신속한 사격준비, 발사조종계통들의 동작민음성도 검토했다.

시험발사를 놓고 남조선의 언론들은 《북은 이번 시험발사로 조선반도에 전개되는 미국전략자산을 무력화시킬수 있는 강력한 대응공격수단을 가지고있다는것을 과시하였다.》고 평가하였으며 미국은 《북의 미사일발사는 조선반도상항

공중이면 공중 그 어디로 침범해오든 임의의 바늘귀같은 개별적목표도 정밀타격할수 있게 철저히 준비되어있는 공화국의 군사적억제력이다.

신행지상대해상순항로켓 시험발사는 미국이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의 도수를 높일수록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미처 정신차려없이 자위적억제력의 다양화, 고도화를 최대의 속도로 실현해나갈것이며 정의로운 자주적핵강국

군사적공격능력을 힘있게 과시하고있다고 하시었다.

태양절정축 열병식이 있는 때로부터 불과 두달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공화국은 미래평양사령부가 등지를 틀고있는 하와이와 미국 알래스카를 사정권안에 둔 신행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의 시험발사와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란 《북극성-2》형의 시험발사, 신행반함공요격유도무기체계의 시험사격 등

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그 누가 인정하든말든 우리 국가는 명실상부한 핵강국이라고 하시면서 상상할수 없이 빠른속도로 비상히 강화발전된 우리의 핵억제력으로 핵공갈을 일삼는자들을 단호히 다스릴것이라고 언명하시었다. 그러시면서 미국이 우리 국가를 반대하여 감히 군사적도발을 선택한다면 기꺼이 상대해줄준비가 되어있다고, 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무기체계가 결코 미

선군의 빛밭에서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본다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의 전과가 온 행성에 메아리쳤던 감격의 그 날로부터 어언 열일곱번째 년륜이 새겨졌다.

더듬어보면 분렬 반세기만에 백두가 맞이하곤 한나가 환호해마지 않은 그날의 사변은 오늘도 겨레모두를 크나큰 걱정으로 가슴설레이게 한다.

분렬의 동토대를 녹이는 6.15의 햇빛아래 우리 민족끼리의 격류가 도도히 굽어있던 환희로운 나날들, 그 용용한 대하우에 또다시 휘몰아친 반역과 대결의 한과...

그러나 얼음장밀에서도 물줄기는

쉬임없이 흐르듯 온 겨레는 미구하여 삼천리에 다시 도래하게 될 통일외 거대한 눈석을 눈앞에 보고있다.

흔히 역사는 비반복적인 사건의 루직이라고 하지만 그에는 일정한 류사성과 공통적인 경향성이 있다.

선군의 강위력한 보검으로 6.15통일시대가 밝아왔듯이 력사의 온갖 풍파속에서도 더욱 위력해지는 선군정치에서 머지않아 밝아올 제2의 6.15통일시대를 확신하며 나눈 그 력사의 진리를 다시금 새겨여본다.

선군으로 밝아온 6.15통일시대

북남관계가 활기에 넘쳐 전진하던 6.15통일시대.

조선반도에서 력사의 물줄기를 오랜 불신과 대결에서 화해와 단합, 통일로 바꾸어놓은 충격과 감동의 시대를 펼쳐놓은 원동력은 무엇이었던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조선반도를 가로지른 분렬의 장벽에 어떻게 커다란 파열구가 생기는가를 생생히 목격했다. 휴전선의 가시철조망과 지뢰밭이 어떻게 걷히우고 막혔던 하늘길, 땅길이 어떻게 열리는가를 우리 겨레 누구나 온몸으로 가슴뿌듯하게 체험했다.

지금 와서 보면 우리 민족은 분단장벽을 허무는 가슴벅찬 통일을 경험했다고 말할수 있다. 많은 동포들이 일치하게 평하고있듯이 흘러간 6.15통일시대는 그자체가 하나의 작고도 큰 통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풀이 무엇인지, 통일이란 어떤 것인지, 둘이 합치면 얼마나 큰 하나가 되는지를 책에서가 아니라 현실에서 보고 온몸으로 감동해준 소중한 그 6.15통일시대는 민족분렬 55년의 그 절절한 통일열망이 너무나 뜨거워 스스로 온것이 아니었다. 이남에서 독재 《정권》이 바뀌어서 온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회억컨대 지난 세기 90년대의 조선반도정세는 참으로 엄혹하였다.

이전 쏘련과 동유럽사회주의가 련이어 좌절되는 속에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은 《랭전에서 승리》, 《사회주의종말》을 웨치며 동방의 크지 않은 나라, 조선에 대한 봉쇄와 압살의 총공세를 가하였으며 《3. 3. 3붕괴설》이 어지럽게 나돌았다.

그도 그럴것이 미국의 클린턴행정부는 선임정권의 대조선전대시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 이른바 《북핵의혹》이라는것을 들고나와 경제적제재와 봉쇄는 물론 군사적수단들을 총발동하여 북을 최대 위협해나섰다.

그 무슨 《외과수술식타격론》이 울러나오고 《작전계획 5027》을 비롯한 북침선제공격작전계획들이 뼈저리게 공개되었으며 북의 중심타격을 노린 핵폭탄투하연습이 하루가 멀다하게 벌어지곤 하였다.

남쪽의 하늘과 땅, 바다를 가득 메우며 벌어진 합동군사연습의 화약내는 전쟁의 검은구름이 더욱 짙어지게 했다.

미국에 의해 조선반도정세가 항상 긴장되어왔지만 그때처럼 전쟁위협이 극도에 달한적은 일찌기 없었다. 이러다가 진짜 전쟁이 터지는가 하여 모두가 가슴을 조이던 시기였다.

이남에서는 대란리가 났었다. 재난에 대비한다며 생필품, 라면같은것을 너도나도 사들이는 이른바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멀리 피난갈 대책마련에 바빴다.

그 시기 민족의 운명은 삶이나, 죽

음이나 하는 갈림길에 놓여있었다. 당장 전쟁이 오늘이나 래일이나 하는 판에 통일에 대해 생각할 여유도 없었고 더우기 6.15통일시대가 도래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바로 그 러 한 때에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만은 온 겨레가 복락할 통일의 래일을 그려보시며 력사의 모든 광풍을 길들여 통일의 봄을 불러오시었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선군정치를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강력한 군사적위력으로 삼천리에 드리워져 있던 전쟁의 먹구름을 밀어내고 평화와 통일의 분위기를 마련하시었다. 국방위원장님께서 선군의 총대로 주체조선, 우리 민족을 건드리는자는 지구상 그 어디에 있던 무자비한 타격을 가할것이라는 선군외침으로 미국의 압살광풍을 짓몽개버리시었다.

세계를 충격속에 몰아넣은 1998년 8월의 첫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의 성공적발사는 북의 강위력한 국력의 과시였다.

선군의 위력앞에 결국 미국은 굽어들지 않을수 없었다.

당시 미국은 조선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 컴퓨터모의시뮬전전을 하였다. 펜타곤의 초대형컴퓨터에서는 《북과 전쟁할 때 미군사상자는 첫 단계에서 5만명,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40만~50만명, 전쟁비용은 일평균 57억~71억US\$로 미국이 진다.》는 결과가 나온바 있다.

그때 많은 정세분석가들이 《미국이 북과 전쟁할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엄청난 후과가 두려워 못하는 것이다.》고 평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었다.

약자에게는 승냥이의 본색을 드러내며 달려들지만 강한 적수에게는 타협하자며 빌붙는것이 미국이다. 미국의 전횡과 침략을 막아내는 담보는 군력에 있다.

북에는 침략세력을 제압하는 강력한 군력이 있다. 하기에 아프가니스탄이 미군의 군화발에 짓밟혀지고 이라크에서는 전쟁의 화염이 타래쳐올랐지만 미국은 북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였다.

다른 나라같으면 열백번도 전쟁이 터졌을 조선반도에서 평가가 유지될수 있는것은 북의 막강한 군력의 덕이었다.

선군의 위력으로 조성된 전쟁위기를 단호히 막아내며 조미대결전을 련전전승으로 이끄신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는 곧 통일의 앞길을 열어가는 애국애족의 장성이었던것이다.

지난 세기말 정주형 현대그룹 전 명예회장일행을 비롯한 이남의 많은 인사들이 평양을 방문하여 북남협력사업의 기초가 마련되고 금강산관광길이 열렸으며 범민족대회와 같은 통일행사들이 진행되어 전반적분위기

재미동포 김수민

가 조국통일에 유리하게 전변될수 있었던것은 모두 선군을 떠나 생각할수 없었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선군정치에 의하여 유리하게 변화된 조선반도주변정세와 북남관계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세기와 세기가 바뀌는 력사의 분기점인 2000년에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으실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었다.

그것이 북에서 전해져오는 국방위원장님의 《백두산구상》이었다.

백두산은 민족의 성산이다. 백두산에서 타고온 항일대전의 불길이 삼천리에 해방만세를 불러왔듯이 미구하여 조선의 통일도 백두산에서부터 밝아오게 되리라는것이 그때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가슴에 고매친 확신이라고 본다.

이러한 선군의 위력, 시대적배경이 민족분단이라 처음으로 북남수뇌상봉이 열리고 6.15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되게 한 원동력이었다.

《력사가 만들어졌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되던 날 이남의 한 언론이 격조높이 평한 이 여덟글자가 상징하듯 불신과 대결의 긴긴어둠을 화해와 단합의 아침으로 바꾼 력사의 기적은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자주통일의지와 선군정치가 산출한 특대사변이라 해야 할것이다.

온 남녘과 행성에 《김정일열풍》이 몰아치는 속에 그해 10월 조선인민군 차수의 군복차림을 한 국방위원장님의 특사가 미국을 방문하여 당시 미국대통령 클린튼을 만나고 그후 미국무장관일행이 평양을 방문하여 국방위원장님의 집견을 받은 경이적인 현실도 북의 선군정치를 떠나 상상조차 할수 없는 장면이었다.

6.15통일시대의 격동적인 나날들을 믿음직하게 수호해준것도 선군총대였다.

6.15통일시대의 날과 날, 달과 달은 온 겨레가 열싸안고 통일을 향해 굽어친 통일환희의 꿈같은 세월이었다.

나는 6.15공동선언발표 5돐을 맞으며 평양에서 진행된 민족통일대추전

선군외성은 통일의 새시대를 부른다

새것의 창조가 낡은것과의 투쟁을 동반하듯이 통일의 길은 그를 가로막으려는 반동들의 필사적발악을 짓부시는 과정을 통해 개척되게 된다.

이남의 친미보수 《정권》의 출현으로 6.15통일시대가 좌절과 진통을 겪고 그 소중한 결실들이 무참히 짓밟힌것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쓰라린 아픔이고 손실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시대를 다 산낡은 반통일세력의 최후몸부림이며 장구한 통일의 길에 가로놓인 일시적인 난관이고 시련일뿐이다.

돌아보면 이남에서 《리명박근해정권》이 등장한 이후 이 반역패당은 6.15공동선언을 부정하고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며 동족대결의 칼을 휘둘렀다.

북남사이의 대결과 불신의 깊은 더욱 깊어지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불구름은 짙어만 갔다. 박근혜당은 허망한 《흙수통일》을 운운하며 6.15의 소중한 모든것을 모조리 마사버렸고 6.15의 옥동자로 불리우던 개성공업지구마저 폐쇄하였다.

극악한 동족대결광녀가 분노한 초불민심에 의해 탄핵당하고 손에 쇠교랑을 찬것은 인과응보라 해야 할것이다.

행사에 참가하여 북남의 당국과 민간이 한데 어울린 감격적인 현실을 목격하면서 통일에 대한 환희와 락관을 폐부로 절감하였던 때를 잊을수 없다.

행사장들이 떠나갈듯이 《우리는 하나다.》, 《우리 민족끼리》를 목청껏 웨치며 《통일열차 달린다》의 경쾌한 노래선률을 맞추어 서로 어깨를 잡고 통일춤도 한껏 추었다.

그러나 그 시각 나를 포함한 수많은 참가자들중에서 이러한 통일잔치가 선군의 보호속에 열리고있음을 느끼이는 과연 몇이었을가.

그때도 내외반통일세력은 우리 민족이 통일로 가지 못하게 갖은 발악을 다하였다. 미국은 이남에 수많은 침략무력을 들이밀어 북침전쟁훈련을 매일같이 벌리였고 이남의 친미반통일세력은 온 겨레의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려고 갖은 모략책동을 다 하였다.

정의와 애국의 총대로 외세의 침략과 간섭을 막고 민족통일의 밝은 전도를 비추준 선군정치에 고마움을 금할수 없다.

격동적인 6.15의 나날에 이남의 언론사대표들을 만나주신 국방위원장님께서 우리의 힘의 원천으로는 두가지가 있다, 첫째가 일심단결이고 두번째가 군력이다, 군력이 있어야 외국과의 관계를 자주적립장에서 풀어나갈수 있다고 하신것은 우리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선군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신 금언이다.

오늘도 북의 어린이들과 인민들은 《장군님과 아이들》이라는 노래를 뜨거우 격정속에 부르고있다.

통일조국의 미래인 아이들을 즐거운 야영의 길로 떠나보내시고 정작 자신께서는 비바람을 맞으시고 험한 령길을 헤치시며 선군장정의 길을 끝없이 이어가신 국방위원장님의 헌신의 눈물겨운 사언을 전하는 뜻깊은 노래이다.

미국이 몰아오는 전쟁불구름을 선군의 힘으로 쳐갈기시며 그분께서 사생결단의 선군길에서 지켜주신것은 아이들의 웃음이었고 북과 남 온 겨레의 운명이었으며 격동의 6.15통일시대였다.

《이제 나라나.》라고 절규하며 천 수백만명이 초불광장에 떨쳐나섰던 이남에서의 전민항쟁은 6.15를 배신하고 동족대결에 명줄을 건 보수당국에 대한 쌓이고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었다.

초불을 든 사람들속에는 평양과 금강산에서 열렸던 통일행사들에 참가했던 각계 인사들도 있었고 숨죽은 개성공업지구의 기업가들도 있었다.

그래서 6.15통일시대가 그립고 이런 소중한 결실을 안아온 선군정치의 귀중함을 더더욱 절감하면서 애국의 선군정치를 받들어 통일의 새시대를 마중가고있는 우리 겨레이다.

우리 겨레에게는 또 한분의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탁월한 선군령장이신 김정은최고령도자님께서 계신다. 그분께서는 선군으로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통일의 밝은 앞길을 열어 나가고계신다.

최근 수년간 조선반도의 정세는 미국의 책동으로 하여 지난 세기 90년대보다 더 엄혹하였다고 할수 있다.

새로 출범한 미국의 트럼프행정은 선임자들을 룡가하여 대조선압살책동에 총력을 집중하고있다.

올해 3월과 4월에 감행된 합동군사연습은 규모와 강도, 기간에 있어서

이제까지 있어본적이 없는 위협천만한 북침핵전쟁연습이었다.

미군부가 《4월전쟁설》까지 내둘러미 조선반도의 정세를 일촉즉발의 첨예한 상태로 몰아갔다는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그렇지만 북은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을 모시여 든든한 배심을 안고 행성을 진감시키는 련이은 선군외성으로 자위적핵억제력을 강화해나가며 침략적인 미국에 총파산을 선고하고있다.

지금 미국의 CNN방송, 영국의 로이터통신 등 세계 여러 나라 언론들은 조선이 새로운 미싸일들의 시험발사를 통해 미국본토와 하와이, 괌도, 일본과 이남주둔 미군기지들에 대한 타격능력을 충분히 과시하였다고 대서특필하고있다.

김정은최고령도자님께서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탁월한 예지와 무비의 담력, 강철의 의지와 불타는 애국헌신으로 북을 동방의 핵강국, 아시아의 로켓맹주국의 전략적지위에 올려세우시었다.

미국이 핵을 가지고 북을 위협하던 시대는 과거로 되였다고 보는것이 공정한 세계여론이다. 유럽의 한 군사전문가는 현재 시간은 조선편이며 조선이 다양한 미싸일을 많이 보유할수록 미국이 무력으로 자기 목적을 실현하기가 더 어려워질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님께서 미국의 군사적공갈과 압박을 핵강국의 지위로 올려놓으심으로써 미국은 감히 선 불질을 못하고 말로나마 《대화》를 떠들고있는것이며 조선반도와 지역외 평화와 안정이 굳건히 수호되고 있다.

필승의 선군외성에서 자주통일의 새시대가 도래하고있는것이다.

그분께서 선군정치로 마련해주신 막강한 핵억제력은 미국의 전쟁마수로부터 조선반도의 평화와 겨레의 운명을 지켜주는 민족공동의 보검이고 통일변영의 귀중한 재부이다.

하기에 우리 해외 동포들은 최고령도자님의 탁월한 령도의 손길아래 《화성—12》형, 《북극성—2》형을 비롯한 주체탄들이 련속 행성의 하늘가에 황홀한 비행운을 새길 때마다 기쁨과 경탄의 박수를 더치면서 세기적위인을 모신 조선민족의 일원된 긍지감을 저마다 토로하고있다.

세계가 지금껏 두려움에 찬 시선으로 바라보아온 미국, 《팍스아메리카나》를 떠들며 다른 나라들을 제압하고 행성을 지배해온 미국, 그 횡포한 제국에 정면도전장을 내밀고 미본토를 겨눈 핵억제력을 주저없이 최대로 강화해가고있는 북의 기상은 그자체가 놀라움이요, 최대의 경탄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령토나 인구수, 경제규모에서 대미가 되지 않는 북과 미국이지만 지금 공포와 전률에 휩싸여 비명을 지르는것은 워싱턴이다.

세계의 정치군사지형이 급속도로 변하는 작금의 놀라운 사변은 동방핵강국의 출현이 가져온것이고 그것은 우리 민족의 찬란한 전성시대를 예고하고있다. 아울러 통일외로 향하는 조선민족의 새로운 도약기를 내다보게 하고있다.

나라의 국력이 반만년 민족사에 최상의 경지에 이르고 미국도 두려움에 떠는 최강의 국가로 발돋움한 북의 위상과 존엄은 우리 민족의 존엄과 생존권을 건드리려는자들은 그 누구도 용서치 않으며 우리 겨레는 반드시 자체의 힘으로 통일강국의 새시대를 안아올것이라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의 무비의 담력과 확고한 의지의 결정체이다.

(4 면 으 로 계 속)

장 시

6월은 통일강국의 새봄 부른다

— 역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7돐을 맞으며 —

김 태 룡

가슴을 흔드는 세월의 메아리가
못 잊을 추억이라면
물노니 6월이어
너의 추억은 그 무엇

홀려간 나날의 소중한 모든것에
삼가 엿어보는것 그리움이라면
말해다오 6월이어
너의 그리움은 그 무엇

저 하늘 가득히 눈부시게
쏟아져내리는 해살에 실려오는
장군님 미소는 6월의 추억
너는 다시 찾아왔구나 이 땅위에
6.15시대 펼쳐주신 은인이 사무치게 그리워

그 누가 말했더냐
시대는 위인만이 열수 있는것이라고
역사는 위인의 뜻과 의지를 따른다고
오, 대결단 대응지로
민족사의 대사변 6.15를 안아오신 장군님

어찌 그날의 환희, 격동을 잊으랴
온 겨레, 온 세계를
충격과 감동속에 들끓게 한 6월상봉
저 백두에서 한나산 끝까지
뜨겁게 터져오른 김정일열풍!

그날처럼 눈부신 태양의 광채
그 언제 겨레가 뵈온적 있었고
그날처럼 목이 메이는 감동의 열물로
온 강토를 화락 적신적 있었더냐
피더운 가슴에 겨레가 모신 장군님영상

불러 눈굴 찌릿해오고
통일이 금방 가슴에 와닿는것만 같아
겨레가 열광한 우리 민족끼리시대
그 시대 장쾌하게 열어주신
장군님 우러러 더친 민족의 경애여

얼마나 좋았더냐
장군님 열어주신 우리 민족끼리
그 길따라 노도쳐간 자주통일의 대하
서리서리 분렬의 세월에 영키고 맺힌
아픔과 울분, 고통 다 가져준 6.15

듣고싶노라 그 나날의 통일노래를
울고웃으며 북과 남이 함께 불러
박동 높뛰던 뜻깊은 6.15송가여
그러보노라 마음과 뜻 하나로 합쳐
통일세월 열어간 못 잊을 화폭들을

눈앞에 삼삼하다
불신과 대결의 얼음장 떠밀어내고
통일환희로 벅차던 6.15시대
동포애의 뜻과 정 덧쌓아가며
분렬을 잊고 통일에 산 감격의 시대

삼천리 이 땅 그 어디든 서보라
우리 민족끼리시대의 만단사연
목메여 전하지 않는 곳 어디 있고
북과 남 그 누구의 가슴인들 헤쳐보라
그때의 소중한 추억 아니 품은 이 있더냐

생사를 알길 없어 얼굴조차 낯설던
백발의 혈육들 꿈처럼 만나
터치고 쏠치던 눈물
아픔을 씻어내는 오열만이였으랴
그것은 6.15에 대한 고마움의 눈물이
있고

끊어진 피줄을 잇듯
북과 남으로 두줄기 레루를 잇고
기운차게 내달리던 통일렬차
삼천리가 들썩하게 울린 기적소리는
6.15가 안겨준 통일의 환호성이었어랴

지구의 한글은 갈수 있어도
지척의 땅은 갈수가 없어
천리 만리보다 더 멀고멀었던 북과 남
상상인들 해보았으랴
서로 통일이 휘날리며 오고갈줄을

우리 민족끼리 열어온 통일의 길
그 6.15세상이 얼마나 좋았는지
산천에 물어보면 산천이 말하리라
세월에 물어보면 봄날처럼 아름다웠던
그 세월이 다 말해주리라

하기에 겨레는 말하지 않았던가
분렬의 칠칠어둠 밀어내고
통일희망의 빛발 뿌려준 6.15
6.15는 겨레의 생명
잃고선 못살 운명의 숨줄이라고

다르게야 말할수 있으랴
분렬의 긴긴 세월
피를 바쳐 원했고
대를 이어가며 갈구했던
그 소망을 6.15가 풀어주었거니

허나 그 누구냐
그 생명, 운명의 숨줄 끊어버리려
악착하게 날뼉 분렬미치광이들은
통일이 금방 와닿는것만 같다고
그토록 회열에 벅차던 겨레의 가슴
대결의 칼날로 란도질한 악한의 무리들은

사계절 통일합성으로 떠들썩하던
저 금강의 붉은 단풍이
피서린 울분을 뿜어 불라 그 몇몇해
6.15의 소중한 열매들이
모진 광풍에 참혹하게 휘말려 그 몇몇해

비극의 그 세월
어이 6.15에 살아 펄펄 끓는 피를 지닌
겨레가 어이 용납할수 있으랴
불이 끓는 겨레의 가슴가슴이
대결의 찬바람에 싸늘히 식을수 있으랴

일떠섰다 북과 남 온 겨레가
애뜻한 그리움일수만 없고
눈감고 명상에 잠길수만 없는
오, 6.15 6.15를 지켜
중오의 격랑되어 분노의 활화산되어

역사는 말해주고있지 않느냐
그 어떤 진리도 어둠에 묻히적 없고
민심은 하늘도 거역 못하는것임을
온갖 불의, 악행과 최악은
파멸을 면치 못하는 수치의 단명임을

말하라 6월이어
6.15를 배신한 역적패당들
분렬의 영원을 꿈꾸던 그 망상이
어떻게 산산이 깨어져나갔는가를
어떤 비참한 운명의 나락을 헤메이는가를

한겨울의 추위를 태우며
저 남녘에 타래쳐오른 초봄의 바다
더는 참을수도

더는 불행을 숙명으로 받아들일수 없는
남녘의 민심이 터친 중오의 폭발이여

쌍이고쌍인 분노가 이글거린 초봄
민생을 죽음에로 떠밀어넣은
역적패당에 맞선 항거의 몸부림만이였
으랴
온 남녘을 지옥의 도가니로 만들어버린
그 악행을 결산하는 심판만이였으랴

그것은 그 초봄은
분렬세월에 기생하는 천하의 역귀들
6.15가 피운 민족화합의 화원
뿌리채 뽑으려 날뼉 광신자들에게
가차없이 내린 파멸의 선고이기도 하였거니

평양과 금강산 백두산으로
통일기 날리며 왔던 사람들
그 손에 분노의 불 추켜들었다
숨죽은 개성공업지구 기업가들
가슴을 뜯던 그 손에 중오의 불 들었다

사랑이 큰것만큼 중오도 큰법
민심을 저버리고 통일을 가로막아
하늘에 머리를 명분조차 상실한
천하에 몸쓸 만고의 그 죄악
역사는 기록으로만 남기지 않았으니
오, 불의에 죽음의 선고내린 정의는 강하다

그날의 초봄 더 높이 추켜들어
6월을 뜨겁게 달구자
6.15를 가로지른 빗장 황황 사르고
6.15시대 감격의 환희 벽찬 활력
우리 심장의 박동으로 높뛰게 하자

민족의 힘으로 안아온 6.15
어찌 그 힘으로
이 땅에 6.15세상 다시 안아오지 못하랴
이제 우리의 가슴에서
더는 더는 커질수 없는 분렬의 피덩이

보라, 북과 남 해외에서
6.15정신에 살아 통일에 살고
6.15를 받들어 통일조국 떠받들자고
날이 갈수록 더더욱 거세어지는
드세찬 열망의 불길을

더는 용납할수 없는 민족분렬의 비극
더는 되풀이할수 없는
불신과 대결 암흑의 세월
단호히 끝장내실 민족운명의 수호자
겨레의 진두에 서계신다

헛된 침략의 망상에 등이 달아
불구를 몰아오는 전쟁미치광이들이
똑똑히 보라 너희들앞에
몸서리치는 비참한 종말을 들썩을
어떤 강의한분이 거언히 계시는가를

오, 그이는
백두산이 맞이한 회세의 위인
그 누구도 범접할수도 맞설수도 없는
강대한 배짱가 담력의 화신
모든 승리와 영광의 상징 김정은최고령도자

전쟁과 침략으로 비대하게 살찌운
제국주의 오만함을 눌러 딛고서신 그이
무진막강 불패의 핵억제력으로
어지러운 행성을 과감히 평정하시는
그이 기상앞에 맞설자 누구냐 썩 나서라

지금도 저 남녘의 하늘과 땅으로
미여지게 쓸어드는 미제의 핵전략자산들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
우리 정의의 위업 말살하려들어도
안된다, 이 땅을 절대로 건드릴수 없다

대지를 박차고 하늘을 꺾찌르며
련방 솟구쳐오르는 《화성》의 불줄기
《북극성》탄도탄의 장엄한 폭음
이는 온갖 횡포와 광기를 단호히 부시는
강대한 불화산 막강한 힘의 퇴성

한줌도 안되는 보수패당들
기를 쓰며 발악의 몸부림쳐봐도
그것은 죽음을 앞둔 마지막 단말마일뿐
겨레는 이미 준엄히 선언하였거니
이 땅에서 숨마져 못칠 생존불가능을

충충하신 배짱 강인담대한 기상에
겨레는 매혹되어 이끌리고
더없이 숭고한 통일경륜에
스스로 마음을 합쳐 따르고 받드는
통일의 구성 민족의 태양 김정은원수님

그이 아니고서야 그 누가
겨레의 마음을 열고 진정을 주랴
겨레여, 우리 다시 새겨보자
하늘같이 높고높은 그이의 응지
대해같이 넓고넓은 그이의 도량

—우리는 민족의 근본리익을 중시하고
북남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와도 기꺼이 손잡고 나아갈것입
니다

—승배를 해도 자기 민족을 숭배하고
믿어도 자기 민족의 힘을 믿어야 하며
통일론의를 해도 자기 민족과 하여야 합
니다

오, 민족을 제일 중시하시는
그이 숭고한 진정에 머리 수그러지노라
더이상 지속시켜선 안되는 민족분렬
우리 대에 반드시 조국통일을!
그 경륜은 또 얼마나 우리 가슴 울리는가

그이만이 삼천리의 평화 안아오시고
6.15세상 다시 빛내일수 있기에
희망과 신심의 눈길로 그이 우러르는
겨레는 이 6월에 웨친다
원수님 뜻 따르면 통일은 온다고

그이 결심만 하시면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의 사변은 이루어졌거니
이제 원수님 펼치시는 통일진로 따라
도도히 굽이쳐갈 6.15의 거세찬 대하
6.15를 따라 통일이 올 그날도 멀지 않았다

가자, 오매불망 바라는 통일강국으로
노도치는 통일의 대하 바라만보며
누구도 방청석에 앉아있을수 없거니
전쟁의 불구름을 쳐갈기며
반통일의 광란 들부셔버리며
겨레여, 우리 손잡고 어깨결고 통일로 가자

통일의 신심 백배해주는 6월
이 땅에 밝아오는 통일해일이
신심에 넘쳐 마중가는 겨레는
오, 창창한 민족의 래일을 본다
6월은 통일강국의 새봄을 부른다

(3 면 에서 계속)
올해 첫 아침 우리 해외동포들은
은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
동토를 열어나갈데 대하여 호소하시
면서 민족의 근본리익을 중시하고 북
남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와도 기꺼이 손잡고 나아갈
것이라고 천명하신 최고령도자님의
신년사를 격동속에 접하면서 탁월한
선군령장, 통일의 령수를 대를 이어
높이 모시여 우리 민족의 통일은 멀
지 않았다는 신심과 락관으로 가슴
끓이었다.
세상사람들이 칭송하고있는것처럼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은 김일성주석님
과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지니시였
던 위인적품모와 자질을 그대로 이어
받으신 천출위인이시고 이 행성의 최
강자이시다.
자주로 존엄높고 일심단결로 위력
하며 핵무기로 더욱 강대해진 북의 국
력은 외세의 침략과 간섭을 물리치고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통일번영의
새세상을 앞당기게 하는 위력한 원동
력으로 되고있다.
천출명장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을
따르는 길에서 자주통일의 대통로가
펼쳐진다.

김정은최고령도자님께서 비범출중
한 선군령도로 안아오시는 통일조국
은 국력이 최대로 강하고 영원히 침
략과 전쟁위험을 모르며 전체 조선민
족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사는 통일번
영의 강국이다.
김정은최고령도자님께서 얼마전
《북극성—2》형탄도탄에 설치한 활
영기가 실시간으로 보내온 지구사진
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쏜 로켓에
서 지구를 찍 내려찍은것을 보니 정
말 기분이 좋다고, 온 세상이 다 아름
답게 보인다고 하시었는데 참으로 뜻
깊은 말씀이다.

침략의 평음을 짓눌러버리는 조선
의 막강한 핵억제력이 있어 이제 정의
와 평화가 수호되는 아름다운 행성,
통일번영의 아름다운 삼천리가 펼쳐
질것이라는 선언이리라.
그분의 마음은 이미 승리한 래일에
가있다. 온 세상이 밝아지도록 호탕
하게 환히 웃으시는 최고령도자님의
모습에서 우리 겨레는 조미대결전에
서 조선민족최후승리의 촉포가 터질
그날을 기쁨속에 그려보고있다.
17년전 북이 선군의 보검으로 제국
주의의 괴립압살책동으로부터 조국과
민족을 수호하고 6.15자주통일시대를

안아왔듯이 북의 더 강력해진 자위적
국력은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확신키
해주고있다.
우리 민족을 무궁창창할 통일번영
에로 이끄실 최고령도자님을 모시여
제2의 6.15통일시대가 곧 도래하리라
는것은 우리 해외동포들이 심장으로
절감하고있는 철리이다.
겨 레 여 , 경 애 하 는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을 따르면 통일
이 온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의 령도따라
신심에 넘쳐 제2의 6.15통일시대를 마
증가자!

천출 위인의 령도 따라 자주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 나가자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구 대표 기자회견에서 강조

력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17돐에 즈음하여 조 일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구 대표는 13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하였다.

회견에서 대표는 조국통일위업수행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경모심을 금치 못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장장 반세기이상 겨레의 가슴속에 쌓이고 맺혔던 분열의 설움을 6.15통일시대의 봄빛으로 따스히 녹여주신분은 위대한 장군님입니다.

그이의 투철한 통일의지와 넓은 도량, 애국애족의 대용단에 의하여 2000년 6월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남북수뇌상봉이 이루어지고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핵으로 하는 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

55년간에 걸치는 대결과 반목의 력사에 파렬

구를 낸 통일선언문에 서명하시던 김정일장군님의 거룩하신 영상을 영원히 잊을수 없다.

공동선언의 기치밑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자주통일사상과 로선,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김정일장군님은 6.15통일시대의 개척자, 령도자이다.

민족자주와 대단결위업 실현의 밝은 전망을 열어 놓으시고 겨레에게 조국통일의 리정표를 안겨주신 그이의 거대한 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그는 회결과 랑만에 넘쳤던 6.15시대의 소중한 성과들이 강그리 말살되고 남북관계가 최악의 대결상태에 놓이게 된것은 전적으로 우리 민족의 통일지향에 악랄하게 도전

해나선 미국과 피뢰보수 패당때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조국통일운동사에 뚜렷이 아로새겨진 6.15통일시대는 결코 력사의 추억으로만 남을수 없다.

온 겨레를 환희로 들끓게 하고 전세계를 격동시킨 이 장엄한 시대는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야말로 가장 정당한 조국통일의 기치임을 실증해주었다.

과국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구원하고 나라의 통일문제를 민족의 요구와 근본리익에 맞게 풀어나가자면 공동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는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에 미쳐달랠다가 비참한 종말을 고한 박근혜역도의 말로는 외세의존은 치욕과 파멸의 길이라는것을 똑똑히 새겨주었다.

6.15를 지키면 모든것을 얻고 6.15를 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다.

오늘 자주통일위업의 진두에는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서계신다.

천출위인의 령도따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 나가려는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의지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을 모시어 우리 민족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며 통일운동의 앞길에는 6.15의 기치가 더 높이 휘날리게 될것이다.

반제민전의 전위투사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일심충정으로 받들어 내외분열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제2의 6.15통일시대를 안아오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위원장 고 광동의선생의 조의식 진행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위원장 고 광동의선생의 조의식이 16일 평양의 고려동포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조의식장은 남조선의 경상남도 남해에서 출생하여 미제의 잔인한 군정통치가 실시되고 친일, 친미 매국노들이 살판치는 남녘땅을 저주하며 현해탄을 넘어 일본으로 건너가 온 70년간을 해외에서 살

면서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남조선사회의 자주화, 민주화를 위한 길에 혼신을 강그리 바쳐 투쟁해온 명망높은 통일애국인사를 잃은 슬픔으로 하여 송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조의식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민족화해협

의회, 해외동포사업국 등의 일군들과 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동포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조국과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며 민족의 대단합과 자주통일을 위하여 헌신해온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위원장 고 광동의선생을 추모하여 화환을 진정하고 묵상하였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우유부단한 태도가 문제이다

남조선당국이 6.15공동선언발표 17돐을 맞으며 진행하게 되었던 민족공동행사가 무산되게 된 책임을 북에 넘겨줘보려고 높아대고 있다.

지난 9일 남조선의 한 당국자는 《6.15공동선언 17주년기념 남북공동행사는 북측이 거절하였기때문에 개최되지 못하게 되었다.》고 《대화에는 상대가 있기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구차스럽게 변명하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할수 있는것은 다하였다. 문제는 북때문이었다.》는 당치 않은 궤변까지 늘어놓았다. 통일부도 기자들에게 《북측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의 방문과 관련한 초청장이나 신변안전보장각서를 보내오지 않았다.》고 《서해적항로를 여는 문제도 남북당국사이에 실무협의를 해야 하겠지만 북측의 련락이 없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마치도 공동행사가 실현되지 못한 책임을 북에 있는것처럼 높아대었다.

지금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를 비롯한 남조선의 각계는 《6.15공동행사보장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서도 할 소리가 있는가.》고 하면서 남조선당국의 비렬한 태도를 강력히 비난하고있다.

6.15공동선언발표 17돐 기념 민족공동행사가 미국과 보수패거리의 눈치를 보면서 우유부단한 태

도를 취한 남조선당국때문에 개최되지 못하게 되었다는것이 남조선 각계와 민심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이번에 진행하게 되었던 민족공동행사에 어떻게 림하는가 하는것은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에 대한 남조선의 현 집권당국의 태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시금석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처음부터 《국제제재의 틀속에서 검토하겠다.》고 하니 하는 등으로 시답지 않은 태도를 취하면서 여기에 손발을 잡으려 하지 않았다. 지어 미국의 날로 로골화되는 북침핵전쟁도발방기에 대처한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자위적국방력강화 조치를 걸고들면서 민족공동행사개최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는것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고도 이제와서는 모든 책임을 공화국에 넘겨줘우려고 높아대고있는 것이다.

가관은 집권한지 겨우 한달밖에 안되는 남조선당국이 벌써부터 《할수 있는것은 다하였다.》는 잡꼬대같은 궤변을 늘어놓고있는것이다.

이것이 지난 시기 동족대결에 광분하면서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은 저들의 범죄를 가리워보려고 여론을 오도한 이전 보수당국의 추악한 행위와 무엇이 다른가.

더우기 문제로 되는데

는 남조선당국이 주대없이 미국과 보수세력의 눈치만 살피는 주제에 그 무슨 《남북관계개선》을 떠들어대고있는것이다.

명백히 하건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민족자주정신, 우리 민족끼리리념의 결정체이다.

이전 민주개혁 《정권》이 미국의 승인이나 보수세력의 동의를 받아서 북남선언들을 채택한것이 아니라라는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다.

현 남조선당국의 우유부단한 태도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을 계승한 《정권》, 남조선조불민심을 대변하려는 《정권》인가 하는것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게 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지금처럼 나가다가는 북남관계개선은 고사하고 집권기간 변변한 대화한번 못해보고 내외의 비난과 저주만을 받은 보수 《정권》의 수치스러운 전철을 밟는 결과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민족과 각계의 민심을 더이상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개선을 바란다면 대미의존에서 벗어나야 하며 보수패당의 반민족적죄악을 단호히 심판할 용단부터 내려야 한다.

본사기자 김영진

시급한 인도주의현안을 외면하지 말아야

지난 1일 서울에서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등 진보단체들이 《보안법철폐와 량심수선원석방 1124회 목요일 시가행회》를 가지었다. 여기서 민가협회장, 《북해의식당 여성종업원기획탈북의혹사건 진상규명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김련회와 12명 여성종업원탈북의혹사건은 모두 친분을 끊어내는 사건이다. 하루빨리 이들을 송환해야 할것이다.》고 하면서 청와대와 외교부, 통일부,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적십자사에 김련회녀성의 송환과 여성종업원집단랍치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원상회복문제를 빠른 시일안에 해결할것을 호소하는 성명서를 전달하였다. 또한 지난해 12명의 공화국녀성공민들에 대한 집단랍치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외부와 격벽된 곳에 감금되어있는 녀성공민들과의 《변호인접견》을 다시 추진하는 등 남조선 각계층들속에서 강제억류된 북주민들의 송환을 위한 투쟁이 적극적으로 벌어지고있다.

그러나 지금 남조선당국은 각계층의 호소와 요구를 무시하고 강제억류하고있는 공화국녀성들

의 송환문제를 고의적으로 외면하고있다. 《국회》에서도 공화국녀성공민문제에 대해서는 일수선원석방 1124회 목요일 《8.15남북리산가족상봉》을 《축구》하는 《국회》결의안이라는것을 채택하기로 합의하는 높음을 벌리고있다. 지어 지난 8일에는 통일부당국자가 나서서 《본인의사에 따른 탈북》이 끊어내는 사건이다. 하루빨리 이들을 송환해야 할것이다.》고 하면서 청와대와 외교부, 통일부,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적십자사에 김련회녀성의 송환과 녀성종업원집단랍치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원상회복문제를 빠른 시일안에 해결할것을 호소하는 성명서를 전달하였다. 또한 지난해 12명의 공화국녀성공민들에 대한 집단랍치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외부와 격벽된 곳에 감금되어있는 녀성공민들과의 《변호인접견》을 다시 추진하는 등 남조선 각계층들속에서 강제억류된 북주민들의 송환을 위한 투쟁이 적극적으로 벌어지고있다.

그러나 지금 남조선당국은 각계층의 호소와 요구를 무시하고 강제억류하고있는 공화국녀성들

과 《인도주의》, 《리산가족》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부당하게 억류되어있는 공화국녀성들의 송환부터 하루빨리 해결하는것이 순리이다.

6년전 남조선에 끌려간 김련회녀성은 지금 이 시각에도 자기를 하루빨리 공화국의 품으로 돌려보내줄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으며 지난해 박근혜당에 의해 해외에서 집단랍치된 12명의 녀성종업원들은 생사여부조차 알수 없는 곳에 갇금되어 야만적인 《귀순공작》 등 갖은 악행을 당하고있다.

공화국의 피해자가족들은 이 시각에도 사랑하는 어머니와 자식들을 애라게 부르며 뜬눈으로 날과달을 보내고있으며 보수패당의 친인공노할 만행에 치를 떨고있다.

새로운 《리산가족》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며 동족에게 쓰라린 고통과 불행을 가하고있는 극악한 반인륜적범죄를 덜어놓고 그 무슨 《인도주의》와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에 대해 론하겠다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공화국녀성공민들의 무조건적인 송환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북남사이에서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한 그 어떤 인도주의 협력사업도 있을수 없다. 그것은 공화국의 립장이자. 그것은 또한 인간의 불행을 덜어주는 선차적이고도 더는 미룰수 없는 요구이기도 하다. 강제로 억류당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북으로 돌아가겠고 피라게 웨치는 현실을 외면하고 그 누구도 인간의 권리, 인도주의에 대해 말할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이전 박근혜 《정권》과 다르다면 부당하게 억류되어있는 공화국녀성공민들에 대한 처리문제에서도 확연히 달라야 한다. 그들을 본인들과 가족들의 피라는 요구대로 지체없이 돌려보내야 마땅하다. 그리고 박근혜당국이 불순한 정치목적으로부터 저지른 10여명의 공화국녀성공민들에 대한 집단랍치사건의 진상을 낱날이 밝히고 범죄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것이다.

장철수

6.15공동선언발표 17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기념행사 진행

력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17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12일 중국 심양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하였다.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회장을 비롯한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재중조선청년련합회 일군들, 심양시에 살고있는 조선공민들이 기념행사에 참가하였다.

행사장정면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태양상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먼저 최은복의 장이

랑독한 다음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을 마련해주심으로써 자주통일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민족의 통일대강을 높이 받들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해나가는 길에 한 몸 다 바칠 굳은 결의들을 다지였다.

기념행사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참가자들은 6.15자주통일시대를 열어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수록한 기록영화를 관람하였다.

한편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 연변지구협회, 룡녕지구협회와 베이징시지부, 연길시지부, 불루 비롯한 각 지구협회들과 지부들에서도 토론회 등 여러가지 기념행사가 진행되었다.

본사기자



이 땅에서 살아 숨쉬는 수 없다

얼마전 평양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었다.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를 계기로 어린이들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인상에 지금 온 세계가 감동과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남조선보수언론들만은 공화국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정치를 시비하고 헐뜯는 극악무도한 망동을 부러내고 있다.

남조선의 (KBS) 방송은 그 무슨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몇몇 자들과 《탈북자》쓰레기들까지 내세워 《유치원시절부터 철저한 세뇌교육을 받는다.》느니, 《시장의 영향을 받은 세대에 대한 사상주입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느니, 《장마당을 경험한 젊은 세대들속에서 체제

에 대한 불신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느니 하는 꾀변들을 내뿜으며 공화국 청소년들의 의식상태에서 그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있는듯이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MBN》, 《런협뉴스》를 비롯한 보수언론들도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에 대해 터무니없는 악담들을 거리낌없이 쉼쳐대고 있다. 남조선보수언론들의 여론오도행위는 극히 한계를 넘어 무엄하게도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헐뜯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것은 대결에 환장하여 인간적인것이란 찾아볼래야 볼수 없는 천하무퇴한들, 신성한 언론의 칼을 쓴 쓰레기매물가들만이 저지를수 있는 반인륜적, 반민족적악행의 극치라고 해야 할 것이다.

후대들에 대한 사랑은 인간이 지닐수 있는 가장 고상한 감정이며 사랑가운데서도 가장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이다.

절세위인께서 지니신 특유의 후대사랑에 의해 공화국에 날마다 펼쳐지는 가슴뜨거운 화폭들에서 인류는 불세출의 대성인의 무변광대한 인정의 세계를 보고있다.

온 세계가 아이들의 밝

고 담긴 모습이야말로 조선의 진짜 국력이고 찬란한 미래이라고 격찬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남조선보수매당과 그 시녀인 보수매물가들은 공화국의 이러한 눈부신 현실을 한사코 부정하면서 어떻게 하나 깎아내리고 먹칠을 하지 못해 안달복달하고있다. 공화국은 남조선보수언론들과 기자나부랭이들에게 반공화국모략나발을 불어댄 최악의 대가를 어떻게 치러야 하는가를 명백히 경고하였다.

쓰레기매물가들은 백지장같이 하얗고 순진한 우리 어린이들을 《장마당세대》니, 《세뇌교육》이니 하고 참을수 없이 모독한 최악만으로도 천벌을 면치 못할것이다.

공화국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정치를 감히 헐뜯어댄 보수언론기관들과 쓰레기매물가들, 그것을 조직하고 부추긴자들을 마지막까지 찾아내어 무자비한 징벌을 안기자는것이 공화국 천만민들의 결심이고 의지이다.

공화국의 최고존엄에 도전해나선 특대형범죄자들은 이 땅에서 살아숨쉬수 없다.

송성일

절대로 용서할수 없다

평양신원소학교에서 공부하고있는 우리 아들 국진이 얼마전에 진행된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에 대표로 참가하는 영광을 지니었다.

TV에서 대회장에 의젓하게 앉아있는 국진이를 보며 우리 가족모두는 너무도 기뻐 환성을 올리기가 하였다.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지금 온 나라 인민들은 아이들을 왕으로 내세워주

시며 크나큰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감동과 걱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그런데 남조선피뢰언론들이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에 대해 《총성심고취행사》니, 《체제유지용전신성형사》니 하고 악담들을 쉼치다 못해 무엄하게도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중상모독하였다니 격분을 금할수가 없다.

아이들의 깨끗하고 순진한 마음을 우롱하고 우리 제도를 비난하다 못해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건드린 이 천하무퇴한들을 어찌 용서할수 있겠는가.

동족대결에 환장하여 인간이기를 그만둔 이런 놈들은 반드시 민족이 내리는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것이다.

국가품질감독위원회 부원 최지선

뼈저린 후회를 하게 될것이다

피뢰보수매당이 공화국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정치를 대해 시비질하고 헐뜯다 못해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모독하고있다는 사실은 격분을 금할수 없게 한다.

외진 섬에도 단 한명의 학생을 위해 분교가 서고 교육기자재와 선물을 실은 비행기가 날아가는 나라,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불러주고 후대들에 대

한 사랑을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는 나라가 바로 우리 공화국이다. 병원에서 아이들은 무상으로 치료를 받고 입원기간 병원안에 꾸러진 교실에서 마음껏 공부도 한다.

이 모든 현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후대사랑이 낳은 가슴뜨거운 화폭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을 한사코 부정하며 피뢰매당의 시녀가 되어 동족을

헐뜯는데만 혈안이 된 보수언론들은 어떻게 하나 공화국을 깎아내리고 먹칠을 하지 못해 온갖 모략선전을 해대고있다.

거짓악담질의 대가로 차례질것은 무서운 징벌뿐이다.

남조선보수매당들과 쓰레기언론들은 동족대결망동으로 하여 뼈저린 후회를 하게 될것이다.

평양인재초급중학교 소년단지도원 서경일

치떨리는 특대형테로범죄의 진상 (2)

평양에 자리잡은 반역자 김성일놈과 위성수신련계를 가진 남조선의 《국정원》 매거리들은 2016년 수차례에 걸쳐 수뇌부테로에 대한 지령을 주었다.

《국정원》 요원 한모는 2016년 2월과 3월, 4월에 《수뇌부테거》 작전을 위한 비밀조직을 내오는 문제와 관련하여 김성일과 수차례에 걸쳐 모의한 후 같은해 5월 공화국 최고수뇌부의 음성인식숙취에 의한 생화학물질분무기를 공기조화기에 설치하여 테로 및 암살음모를 실현할데 대한 모의를 하였다.

2016년 6월 16일과 21일에는 김성일에게 《〈수뇌부테거〉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지령과 함께 여러 경로를 통해 5만 US\$의 공작금을 지불하였으며 7월 6일에는 공화국 최고수뇌부에 대한 전용물자공급부서에 비밀조직의 성원을 꼭 파악하라는 지령을 주었다.

2016년 8월 12일에 《국정원》 요원 한모는 《최고수뇌부가카이에 접근할수 있는 인물, 최고수뇌부가 사용하는 물품들과 식료품공급경로에 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면 〈국정원〉에서 〈수뇌부테거〉와 관련한 실효성있는 안을 만들어낼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보다 많은 자료들을 보내라. 그리고 해외

연락거점을 꾸리는 문제는 〈수뇌부테거〉 작전에 필요한 장비들의 안전한 반입통로와 비밀조직의 활동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한것으로 의미가 있으므로 다그치라.》고 독촉하면서 2차에 걸쳐 연락거점마련과 테로공범자매수에 필요 10만 US\$의 자금을 대주었다.

2016년 9월 29일 《국정원》 요원 한모는 김성일에게 《〈국정원〉의 웃분들이 비밀조직 많은 관심을 가지고있고 일이 잘 성사되기를 바라고있으며 지원을 아낌없이 하려 하고있다. 우리가 하고있는 일이 민감하고 중요하다는 지령을 주었다.

그로부터 며칠후인 10월에 《국정원》 요원 한모는 자기의 첩자를 통해 새로운 위성통신기재와 4만 US\$의 자금을 김성일에게 보내주었다.

4월 17일 《국정원》 요원 한모는 수뇌부테로 및 암살이 실패하는 경우 조선반도에서는 바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테로 및 암살장비의 안전한 제공을 위해 평양에 있는 테로 및 암살실행자들에게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보낼데 대한 지령을 보내고 4월 20일에도 《국정원》이 수뇌부암살 및 테로장비를 납입하였다는 사실이 로출되면 조선반도에 상상할수 없는 파국이 일어날것이라고 하면서 암살 및 테로실행자

《국정원》 요원 조기철과 첩자인 《청도나스카상무유한공사》 사장 허광해가 중국 단둥에서 테로공범자를 직접 만나 새로운 위성통신기재와 5만 US\$의 자금을 넘겨준 다음 해외연락거점마련을 위한 《계약서》를 맺고 5월초에는 그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 1차적으로 납입하게 하였다.

지난 4월 7일 《국정원》 요원 한모는 김성일에게 《미중양정보국도 인간의 욕구와 심리상태를 계층별로 구분하여 점진적으로 포섭을 추진한다.》고 매수방법까지 대주면서 행사장에 침투시킬 테로공범자포섭에 참고하라는 지령을 주었다.

2016년 10월 5일 《국정원》 요원 한모는 김성일에게 《아침일찍 〈국정원장〉 으로부터 평양의 비밀조직이 진행하는 수뇌부암살 및 테로공작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있는지 몹시 궁금해하는 연락이 왔다. 그래서 비밀조직의 의지는 변함이 없으며 보다 큰 진전을 위해 해외에서 다시 접촉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있으며 조만간 중간보고를 하겠다.》는 내용을 전문을 보냈으며 10월 24일에는 최고수뇌부에 대한 테로 및 암살방안과 그 실행자선정과 관련한 모의를 하였다.

그리고 지난 3월과 4월

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이 남조선 《국정원》의 살인악마들은 미중앙정보국의 배후조종과 공모결탁밑에 공화국의 최고수뇌부에 대한 테로 및 암살에 리용할 생화학물질과 살인장비들을 제작하고 퍼를 본 승냥이마냥 미친듯한 광기에 들떠 최첨단위성통신장비들과 20여만 US\$의 자금을 아낌없이 들이밀면서 테로와 암살음모를 거어어 실행해보려고 미쳐달뛰었다.

같은 군사적위협공갈과 경제적제재, 악선전을 통해서도 공화국을 굴복시키고 일일단결을 허물수 없게 되자 대조선암살의 광기에 젖어있는 적대세력들은 이처럼 도저히 용서 못할 물리적테로방식까지 고안하고 준비해왔던 것이다.

이것은 미국과 남조선 《국정원》이 저질러온 특대형국가테로행위로서 천추만대를 두고도 용납 못할 극악무도한 범죄이다. 지금 공화국의 군대와 각계층 인민들은 적대세력의 범죄행위에 치를 떨면서 지구상 그 어디에 숨어있는 테로광신자들을 초조리 잡아내어 엄벌에 처하려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극악무도한 특대형범죄를 조직하고 그에 가담한 자들은 반드시 준엄한 징벌을 면치 못할것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끝)

최근 남조선에서 군부내에 《독사파》라는 사조직이 활동하면서 그들이 군권을 독점하고 전횡을 부리고있는 사실이 폭로되어 사회 각계의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얼마전 더불어민주당은 군부내에 《알자회》(남조선 륜군사관학교 34기 생들이 친구를 알고 도우며 살자는 명목으로 조직한 군부내 사조직의 락칭)와 함께 《독사파》(도이철란드 륜군사관학교 류학생들로 조직한 군부내 사조직의 락칭)라는 것이 존재하고있으며 여기에는 전 청와대안보실장 김관진, 국방부 장관 한민구 등 군부의 우두머리들과 인맥이 깊은자들이 관여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특히 《독사파》의 우두

머리인 김관진은 2006년부터 합동참모본부의장, 국방부 장관,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 등 요직들을 차지하고 《독사파》 조직을 확대하였는데 그 수만 명의를 이끌었다고 한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독사파》 조직에 관계된 자들모두가 친미사대군성애에 썩어들어가고 동족증오와 북침전쟁광기가 골수에 배긴 군사깡패들이라는것이다.

이자들은 리명박근혜당의 비호조장밑에 군부를 장악하고 북침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면서 《안보위기》를 고의적으로 조장하여 역적패당들의 파쇼통치를 뒤받침해왔다. 반공화국모략사건인 《천안》호침 2015년 8월 의문의 지뢰폭발사건과 공화국 영토에 대한 포사격사건을 일으켜 정세를 전쟁의 문턱에까지 몰아간 주범들도

《독사파》와 《알자회》를 비롯한 사조직성원들이었다.

이자들은 《북의 핵 및 미사일위협》과 《국방현안》의 간판밑에 남조선 인민들의 현세를 미국 상전에게 섬겨바치고 파괴철과 같은 무기들을 사들이는 대가로 권력을 유지하고 저들의 돈주머니를 불리워왔다. 최순실녀인 박근혜역도의 권력을 등대고 《알자회》에까지 줄을 뻗쳐 군인사문제에 개입해온것은 박근혜역도와 결탁된 사조직의 추악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독사파》성원들이 《싸드》발사대의 추가미반입을 주도했다는 것이 폭로되면서 남조선의 진보정당들과 각계층력사건인 《천안》호침은 《이것은 명백히 〈국물사건을 조작한것도〉, 〈양대상으로 된다.〉, 〈감찰을 통하여 검토해야 한다.〉, 〈군부내 사조직들을 축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그런가 하면 남조선의 정계와 사회계는 물론 민간에서도 《독사파》니, 《알자회》니 하는 군부깡패집단이 어제날 12.12속군쿠테타로 권력을 장악한뒤 《하나회》처럼 쿠테타를 일으키거나 전쟁도발망동을 감행할수 있다는 여론이 돌고있는 정도이다.

제반 사실은 남조선의 군부깡패들이 저들을 치마폭에 감싸주던 박근혜 《정권》이 꺼꾸러진데 대해 통탄하면서 극우보수세력의 재집권을 위한 칼을 갈고있으며 그것을 언젠가 빼어들지는 누구도 모른다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독초는 뿌리채 뽑아버려야 한다고 했다.

남조선인민들은 온갖 최악을 일삼다못해 재앙단지인 《싸드》를 한사코 끌어들이 민족의 머리위에 핵참화를 들죄우려고 발악하는 남조선군부내의 박근혜집당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다.

본사기자 김명성

독초는 뿌리채 뽑아버려야



6월인민항쟁 30돐 범국민추모집회 서울에서 진행

남조선인 테레 트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6월인민항쟁 30돐을 맞으며 10일 서울에서 조국통일과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목숨을 바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집회가 진행되었다.

유가족들과 재야인사들, 각계층 시민들이 참

가한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6월민중항쟁이 있는 때로부터 30년이 되는 올해에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희생자들의 뜻을 이어 초불항쟁으로 불의한 《정권》, 폭압 《정권》을 몰아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그 기세로 희생자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

투쟁할것을 호소하였다.

남조선사회의 가장 큰 악제는 《보안법》과 《중복몰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희생자들에게 대한 탄압인행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보수세력의 악패를 청산하는 범국민운동을 벌려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본사기자

최근 로씨야내통의혹사건으로 국도의 궁지에 빠진 미당국자가 위기탈출을 위해 《대북선제공격》모험에 나설수도 있다고 한 미국 정계, 학계의 일부 인물들의 주장이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다.

로씨야내통의혹사건은 지난해 로씨야가 트럼프의 대통령당선을 돕기 위해 민주당캠프를 해킹하는 등 미국대통령선거에 개입하고 그의 측근이었던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폴린이 대통령선거부터 미국주재 로씨야내사와 비밀리에 여러차례 전 화대화를 가지었고 2017년 1월에는 미국이 대로씨야 제재를 해제하는 문제까지 논의하는 등 트럼프행정부와 로씨야와의 밀착관계에 대한 의혹이 언론들에 의해 제기된 사건이다. 취임초기부터 이 문제로 팔랑을 떠던 미당국자는 사건무마를 위해 지난 5월 9일 로씨야의 미국대통령선거개입과 측근들의 로씨야내통의혹을 수사하고있던 미련방수사국 장관 코미를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해임하였다.

그런데 지난 6월 7일 전 미련방수사국 장관 코미는 트럼프로부터 전 백악관 국

가안보보좌관 폴린의 로씨야내통의혹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데 대한 압력을 받았다는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미상원에 제출하고 미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이에 대해 까뵈하였다.

이로 하여 지금 트럼프는 특검수사를 받지 않으면 안될 최악의 정치적위기에 빠졌으며 정계와 언론들에 서는 트럼프에 대한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있다. 이러한 속에 미국외교 협회 예방행동센터 선임 연구원 젤코를 비롯한 일부 인물들이 미국의교전 문잡지 《포린 폴리시》에 기고한 글 등에서 백악관을 겨냥한 로씨야추 문사건이 불러올 극단적인 상황에 대해 예상하면서 트럼프가 날로 불리하게 변제되는 추문사건과 견잡을수 없는 지지물락에 탄핵위기까지 겹쳐들면 북의 핵시설들과 장거리미사일기지에 대한 선제공격명령을 내릴수도 있다고 예측한것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지난 세기 50년대 미국 의 트루먼행정부가 심각한 경제공황에 따른 위기에 서 벗어나기 위해 조선전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쟁을 도발하였으며 70년대에는 워터게이트사건이 드러나자 닉슨이 칠레정권전복사건을 조작하고 국내정치위기에 몰린 부쉬1세와 클린턴도 위기모면용으로 떠나마침공과 이라크에 대한 공격을 단행한것이 단적인 실례이다. 더우기 지금 워싱턴정가에서는 매우 거칠고 극단적

인 성격의 트럼프가 정신적으로 위축되어 화를 잘 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만 이 있는것처럼 행동하는 등 정신상태에 이상이 생겼다 는 소리들이 나오고있으며 사람들은 현재의 정신상태 가 트럼프에게 《위험한 일로》로 될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가 위기탈출을 위해 《대 북선제공격》모험에 나설 수도 있다고 한 미국 정 계, 학계의 일부 인물들 의 주장이 결코 억측이나 추측이 아니라라는것을 실 증해주고있다. 트럼프가 떠나마와 이 라크를 비롯한 역대 미국 통치배들의 강권과 침략, 위기탈출의 희생물이 되 어 비참한 운명 을 당하였던 다 른 나라들처럼 공화국을 대한 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 은 없을것이다.

만약 트럼프가 눈앞의 리익에만 눈이 어두워 어 리석은 《대북선제공격》 에 나선다면 지난 세기 미 국의 원자탄투하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입은 참혹한 피해에 대비 도 안될 파멸적재앙을 초 래하게 될것이다. 남조선당국이 정신병자 인 트럼프에게 추종하여 북침전쟁발장난소동에 계 속 매달리다가는 상상하 기 끔찍한 대참화를 불러 오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철민

거스를수 없는 초불민심의 요구

최근 남조선당국이 리명박, 박근혜 《정권》 시 기 감행된 정보원의 정치 개입사건들을 《국정원》 7대정치개입사건으로 규정 하고 그 진상을 파헤치 기 위한 조사에 착수하였 다고 한다.

이번에 남조선당국이 조 사에 착수한 《국정원》 7대정치개입사건이란 리명박, 박근혜당이 보수 재집권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정보원을 내 세워 감행한 《국정원대 선》 개입사건, 서울시장 박원순사찰의혹, 불법해 킹의혹, 부산수뇌상봉담 회기록공개, 서울시공무원 7대정치개입사건조사 지원의혹, 박근혜-최순 실추문사건은페의혹 등이 라고 한다.

7개의 사건이 터진 당 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 개혁세력들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사건들에 대 해 《불법적인 정치개입 사건》이라고 규탄하면서 법적대응에 나섰지만 권 력을 틀어쥔 보수세력들 의 횡포에 의해 진상을 제 대로 파헤치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보수세력 들이 《정권》의 자리에

서 쫓겨나고 새 《정권》이 출현하면서 《국정원》 7대정치개입사건이 다시 조사되게 된것이다. 지금 남조선당국은 《적폐청산법》을 《국정 원》감찰실에 새로 내오 고 사건조사에 본격 착수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 민주당과 진보민주세력들 은 《국정원》 7대정치개 입사건조사를 통해 《국 정원》 개혁과 《적폐청 산》을 실현해야 한다고 요구동성으로 지지해나 서고있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비롯한 보수정당세력들은 《국정 원》 7대정치개입사건조사 가 《이전 (정부)에 대 실추문사건은페의혹 등이 《야당시절에 당한 분풀 이를 하고있다.》고 반발 하면서 당장 조사를 중지 하라고 벅적이는가 하면 《대사건들은 검찰조사 로 대부분 해명되었다.》, 《여론의 혹독한 검증을 받았던 사건들로서 더 밝 혀낼것이 없다.》, 《7대 사건조사는 법적으로 거 도 뚜렷한 명분도 없다. 전 (정권)을 물고늘어지는 데 《국정원》들이 실망하

고있다.》고 하면서 여론 을 오도하고있다. 이것은 죄지은자들이 뒤가 쟁겨 떠드는 한갓 비 교소리라 불과하다.

남조선에서 《유신》독 재자에 의해 《국정원》 의 조상인 중앙정보부가 생겨난 때로부터 이 정 보모략기구가 역대 보수 집권세력들의 파쇼통치와 집권안보를 위한 도구로 리용되어왔다는것은 주지 하는 사실이다. 특히 리명박, 박근혜 《정권》은 《국정원》을 손아귀에 틀어쥐고 《정 권》조작은 물론 보수세 력들의 재집권과 파쇼통 치를 유지하는데 적극 리 용하여왔다. 2012년 리명박 《정권》 시 기 박근혜를 당선시키 기 위해 감행된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은 보수세 력들이 재집권을 위해 수 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 다는것을 보여준 단적실 례이다. 불법비법적으로 권력 을 탈취한 박근혜역도는 《유신》독재자인 에비의 본을 따 《국정원》을 저 뚜렷한 명분도 없다. 전 (정권)을 물고늘어지는 데 《국정원》이 청와대의

정책을 그대로 따르겠다 는것이다. 트럼프가 대표하고있 는 미국은 남북이 대화 하 고 관계를 개선하는것 을 몹시 꺼려하면서 이 남당국이 북과의 대화가 아니라 제재에 몰두하라 고 로골적으로 압을 가하 고있다. 이런 미국의 눈치를 보 고 시작부터 그에 끌려다 녀서는 북남관계에서 어 떤해결도 해볼수 없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평 가이다.

향방이 없이 미국의 《론리》에 홀아나고 끌려 다니기만 하다가는 오바마 의 《기다리는 전략》에 같이 춤을 추면서 북남관 계를 깨개 망쳐놓은 리명 박, 박근혜 《정권》의 전 철을 되돌아올수 있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재로씨야동포 김 울라지미르

철면피의 극치, 오만방자한 망언

최근 일본의 아베 특사로 남조선을 행각한 일 본자민당 간사장 니카이의 망언이 남조선에서 커다 란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지난 10일 전라 남도 목포에 있는 《김대중노벨 평화상》 기념관 을 돌아보던 니 까이는 동행한 남조선 《국회》 의원들에게 《일 (한) 관계를 해 치는 간계를 꾸 미는 일당을 박 멸해야 한다.》, 《한중이라도 을지 모르겠지만 발견하면 박멸해 달라.》, 《하찮 은것들로 리각태 각하지 말고 사 이 좋게 가자.》 고 입장 훈시질 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언론들 은 《위안부합의 와 관련한 갈등 이 점철되어있 는 상황에서 민감할수 있는 발언》, 《〈한〉일합 의의 재교섭을 주장하는 〈한국〉사람들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하면서 니

사이의 망발을 비난해나

갔다. 니카이는 아베의 특사 로 남조선을 행각하기 전 인 9일에도 남조선언론과 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돈도 지불했는데 처음부 터 협상하지는 그런 바로 같은 이야기를 하는것은 국제적으로 통하지 않는 다.》고 하면서 오만무례 하게 놀아냈다. 일본반동들의 철면피하 고 오만방자한 본색이 여 지없이 드러난 망발이 아 닌수 없다.

일본은 일본군성노예범 죄를 비롯한 과거죄악에 대해 반성은커녕 재침의 기회만을 노리면서 남조 선을 저들의 옛 식민지로 취급하고있다. 일본군성노예문제 《합 의》로 말하면 박근혜역 적무리들이 섬나라 오랑 캐들로부터 몇푼의 돈을 받는 대가로 일본의 천인 공노할 성노예범죄를 눈 감아준 매국배족적 《합 의》이다. 때문에 그것은 성노예피해자들과 남조선 인민들을 비롯한 온 겨레 의 한결같은 규탄과 배격 을 받고있으며 그 폐기 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날 로 높아가고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도 일 본군성노예문제 《합의》 의 비법성과 반인륜적정 체를 문제시하면서 그 무

효를 주장하고있다. 이러 한 정의로운 주장을 《간 계를 꾸미는 일당》, 《한 중도 안되는것들》로 중 상모독하면서 《박멸》을 운운해나선것이야말로 섬 나라오랑캐들의 야만성과 교활성, 간교성과 포악성 을 그대로 드러낸 오만무 레한 폭언이다.

일본반동들이 남조선을 돌아치며 이러한 망언을 꺼리낌없이 뱉쳐댄것은 지난 세기초 일제가 조선 봉건통치배들에게 날강도적인 《을사5조약》을 강요하며 허수아비처럼 여 기던 지난날을 방불케 하 고있다.

더욱 기가 막힌것은 이 러한 뻔뻔스러운 아베특사 의 추태에 대바른소리 한 마디도 못하고 《〈한〉 일간의 협력》과 《미래 지향적》이라는 따위의 소 리를 늘어놓으며 일본에 굽석거리고있는 남조선당 국의 처사이다. 남조선당국의 비굴한 대 일저자세가 가져올것은 더 큰 대외적고립밖에 없다. 김창일

과거에 눈감고 스스로 재산을 불려온다

최근 남조선당국자들이 일본반동들과 《미래지향 적인 협력관계》를 운운 하며 친일굴종적태도를 보이고있어 각계의 분노 를 사고있다.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일본을 행각한 남조선 《국 회》의장은 각계층이 한결 같이 요구하는 《한일위안 부합의》 재협상문제는 회 피하고 《한일관계회복》 이니, 《대북공조》니 하 면서 친일, 반공화국대결 행위를 감행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18일 특사 의 자격으로 일본에 찾아 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아베와의 회담에서 《미 래지향적으로 발전해가자 는 〈대통령〉의 뜻을 친 서에 담았다.》, 《안보적

으로 북문제 등 공동의 문 제가 있다.》, 《외교복원 적인 협력을 기대한다.》며 일본에 추파를 던졌다. 이것은 《〈한〉일위안 부합의》파기를 요구하는 민심에 대한 배신행위이 고 우리 민족의 천년속적 인 일본에게 빌붙어 동족 을 해치려는 비굴한 추태 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일본의 과거죄악에 눈감 은채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니 뉘니 하며 일본 에 붙어돌아가고있는것은 3각군사동맹을 다그쳐 아 시아태평양전략을 실현하려 는 미국의 배후조종과 세와의 공조밑에 북문제해 결에서 그 무슨 《주도적 역할》을 해보려는 불순한 기도에 따른것이다.

사실상 일본군성노예문 제 《합의》라는것은 박근혜당이 남겨놓은 적폐의 하나이다. 수치고 굴욕의 그 《합의》를 파기하고 일본으로부터 응당한 사 죄와 배상을 받아내려는것 은 남조선인민들과 온 겨 레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지금 오만무례한 일본 반동들이 재협상요구는 《바보같은 소리》라느 니, 《박멸해야 한다.》 느니 폭언들을 뱉쳐대며 돌아치고있는 때 남조선 당국이 일본의 후안무치 한 망동을 문제시하지는 커녕 오히려 그같은 머리 를 숙이고 《관계개선》을 구걸하는것은 피명인 든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 을 모욕하고 일제의 피비

린 과거죄악을 눈감아주 는 용납 못할 반민족적행 위가 아닐수 없다. 이러한 친일굴종자세가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고 도 사회와 배상은커녕 몇 푼의 돈으로 극악한 성노예범죄행위를 일버꾸러버 리고 또다시 해외팽창의 길로 질주하고있는 일본 반동들의 재침야욕을 부 추기고있는것이다. 일본 의 천인공노할 과거죄악 을 덮어두고 《미래지향 적관계》를 운운하는것은 박근혜당과 같이 친일 패국의 전철을 밟겠다는 것이나 다를없다. 더우 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 쳐 자주통일의 앞길을 열 어나가자는 겨레의 지향

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가 고있는 때에 왜적과 입맞 추며 《북핵위협》나발을 불어대는것은 동족에 대 한 용납할수 없는 대결망 동으로 된다.

일본반동들의 군사대국 화책동과 조선반도재침야 망을 짓부셔버리기 위해 북과 남이 힘을 합쳐야 할 시기에 천년속적과 동족대 결을 총책하는것은 제 집 을 노리는 강도에게 칼을 갈아주는 머저리짓이다. 남조선당국은 친미친일 행위와 동족대결에 매달 리다가 피멸당한 박근혜 당의 과멸당한 운명에서 교훈을 찾고 하루빨리 민족자주,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으로 돌아서야 한다. 본사기자 김혜성

동족의 충고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최근 미국은 남조선당국이 《싸드》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기로 한 것을 두고 이리저리거르면서 몰아대고있다. 얼마전 미국무성 정부차관이 서울에 날아들어 《싸드》배치에 대한 양국간의 약속이 있다.》고 하면서 남조선당국을 압박하였다. 또 미국신문 《월 스트리트 저널》은 《환경영향평가는 국가안보문제가 걸릴것을 때에는 면제할수 있고 생략해야 한다.》고 하면서 《친진란만하다.》,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모욕적인 언사까지 실었다.

한편 주변 나라들에서는 《싸드》배치와 관련하여 남조선당국에 압력을 가하고있으며 《싸드》가 배치되는 경상북도 김천시, 성주군의 주민들을 비롯한 남조선 각

계층도 《싸드》배치를 철회할것을 요구하는 투쟁을 더욱 강력히 전개하고있다.

결국 남조선당국은 《싸드》배치문제때문에 사면초가의 처지, 범표리를 친 신세가 되었다. 이처럼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키고있는 《싸드》배치는 《북의 위협》으로부터 남조선을 《보호》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남조선을 세계제패전략실현을 위한 미싸일방위체계의 전초기지로 만들려는 미국의 침략정책에 따른것이다.

미국이 친미주인 박근혜역도가 탄핵위기에 처하자 《싸드》배치를 기습적으로 강행한것도 새 《정부》에 《싸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하도록 압력을 가하는것도 이러한 저들의 침략정책을 기어이 실현하려는데 있다.

하지만 그런 비열한 홍계는 남조선인민들에게 통할수 없었으며 《싸드》배치를 철회하라는것은 거스를수 없는 민심의 요구로 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싸드》배치에 신경을 도사리고 남조선당국에 조속한 배치를 강박하고있는것은 남조선을 한갓 식민지로부터 보지 않는 날강도적본성의 뚜렷한 발로로서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욕이고 위협공갈이라는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남조선은 응당 미국의 리익을 위한 희생물이 되여야 하며 《싸드》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것을 끌어들이고 무작정 받아들이라는 파렴치한 미국식 오만성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초불민심을 대변한 《정

권》이라면 이제라도 제정신을 차리고 미국상전의 강요를 받아들일것이 아니라 《싸드》배치철회를 요구하는 민심을 따르는것이 옳바른 처사일것이다. 남조선당국이 《싸드》문제에 인하여 골치아픔을 시원히 털어버릴 방도는 오직 하나이다. 그것은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자주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동족의 충고를 받아들이는것이다.

지난 14일에도 공화국은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 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자주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성업에 헌신하려는 투철한 립장을 가질것을 호소하였다.

지금 온 겨레는 동족의 이 호소에 대한 남조선당국의 차후행동을 주시하고있다.

강민혁

민족적수치만 남미가 당면한 엄박한 추태

남조선당국이 지난 10일부터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 제2사단창설 100주년을 《기념》하는 놀음을 벌여놓고 있다.

의정부에서 열린 음악회라는것을 시작으로 벌어진 이 놀음은 미제침략군 제2사단이 창설된 10월 26일까지 《기념》음악회, 피역 미군들의 남조선관광, 《한미우호》상징조형물제막식 등을 비롯한 여러 《행사》들로 진행된다고 한다.

조선 민족의 피와 땀이란 꼬물만큼도 없는 친미사대분자들을의 광대극이 아닐수 없다.

알려진것처럼 남조선강점 미군은 지난 70여년동안 남조선을 타고 돌아 반공화국침략소동에 광분하면서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살인과 약탈, 절도와 강간을 일삼으며 온 남조선 땅을 독성폐기물로 오

염시키는 등 온갖 치명리는 죄악만을 일삼는 범죄집단이다.

오늘도 남조선의 곳곳에서는 미군살인마들에 의해 무참히 살육당하고 짓밟힌 무고한 원혼들이 잠들지 못하고 괴어진 복수를 절규하고있다.

더우기 미제침략군 2사단으로 말하면 52년간 남조선의 의정부에 등지를 틀고있던 의정부집단탄간사건, 동두천녀인사발사건, 윤금이살해사건, 두녀중학생학살사건 등 인간의 두뇌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수 없는 투대형피악들을 저지른 살인악마부대이다.

이번에 남조선의정부가 두녀중학생학살사건이 일어난지 15년이 되는 날을 앞두고 《52년간의 우정》이요, 《환송》이요 하면서 미군살인악당들을 위한 음악회까지 벌려

놓는것은 민족적수치도 모르는 얼빠진 추태이다.

한시바빠 내쫓아야 할 강도를 신주모시듯 하며 상전의 발목에 매여달리는 남조선당국의 역겨운 처사는 지금 민심의 저주와 분노만을 자아내고있다.

남조선 각계가 《두녀중학생의 죽음을 추모해야 하는 시간에 혈세를 들여 가해자인 미군을 위한 잔치를 여는것이 될 말이나.》고 규탄해나서고 음악회에 나오게 되어있던 가수들의 대부분이 출연을 거부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전쟁과 살육, 강간과 약탈만을 일삼는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 남아있고 그에 아부추종하는 친미역적무리들이 날치는 한 남조선인민들이 겪고있는 불행과 고통, 재난은 계속 될뿐이다.

본사기자 김웅철



미군과 남조선호전광들 연합잠수함훈련에 광분

12일 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남조선군이 이날부터 태평양상의 팜도주변해역에서 미군과의 연합잠수함훈련을 벌려놓았다.

남조선군은 3주일간 진행하는 이번 훈련을 통해 그 무슨 《북잠수함도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능력을 높일것이라고 떠벌리고있다.

훈련에는 남조선해군의 잠수함과 해상초계기, 미해군의 잠수함, 구축함 등 많은 침략무력이 투입된다.

본사기자

공화국의 다발적이고 련발적인 핵무력강화조치에 질겁한 미국이 그 무슨 제재와 군사적위협책동에 미친듯이 매달리고있다.

지난 1일 공화국에 대한 《독자제제》조치를 발표한 미국은 3일에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내세워 공화국의 탄도로켓트발사를 결코드는 새로운 《제재결의》라는것을 조작하였다.

또한 《북의 핵, 미사일능력강화를 견제》한다는 미명하에 2개의 핵항공모함격대단을 동시에 조선동해에 전개하여 북침핵전쟁연습에 광분하였는가 하면 핵잠수함을 부산항에 들이밀어 정세를 더욱더 긴장시켰었다. 팔도에 배비되어있는 모든 《B-1B》전략폭격기들을 차례로 남장난소동에 미쳐날땀수룩저들의 파멸만을 촉진시킬것이다.

본사기자

수 없는 사실이다.

이 모든것은 공화국의 자주적권리와 생존권을 부정하고 랑폭하게 침해하려는 가장 극악무도한 적대행위이며 가뜰이나 폭발전야에 있는 조선반도정세를 최극단으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도발행위이다.

이 행성을 몇번이나 초토화하고 전인류를 수십수 없다.

돌이켜보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전대미문의 제재와 압박, 로골적인 핵전쟁위협공갈로 공화국의 핵보유를 가로막으려 발악하였지만 그것은 정반대로 공화국의 핵무력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왔다. 히와이와 알라스카, 미본토를 사정권안에 둔 공화국 전략 위협마위로 지체시키거나 막아보려하는것은 초보적인 사리분별도 하지 못하는 정신병자들의 가소로운 추태에 지나지 않는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미국이 원하는 그 어떤 전쟁에도 기꺼이 상대하여 미국을 초토화해버릴 만단의 전투동원태세에 있다.

미국은 상대를 독바로 보고 제 살길을 찾는것이 좋을것이다.

본사기자 김련옥

망동으로 공화국을 건드릴수록 그들이 당할것은 오히려 수치를 과멸뿐이라는것은 자명한 사실로 되고있다.

자주의 기치,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력자강의 무한대함 힘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의 령마루로 비약하는 공화국의 힘찬 진군을 그 무슨 제재압박이나 군사적 위협마위로 지체시키거나 막아보려하는것은 초보적인 사리분별도 하지 못하는 정신병자들의 가소로운 추태에 지나지 않는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미국이 원하는 그 어떤 전쟁에도 기꺼이 상대하여 미국을 초토화해버릴 만단의 전투동원태세에 있다.

미국은 상대를 독바로 보고 제 살길을 찾는것이 좋을것이다.

본사기자 김련옥

사화 병풍에 담긴 조소 (1)

글 신창섭, 그림 박봉혁

살육의 찬바람이 선들 거리는 갈날인마냥 대궐안팎을 마구 휩쓰는데 그 서슬에 고골지신, 고골지신은 물론이고 집현전의 전도유망한 문인재사들이 목이 없는 귀신이 되어 땅바닥에 마구 나뒹굴었다. 아비지옥의 이수라들이 쇠뿔등을 휘둘러 때때다 조정안팎은 온통 삭풍에 얼어드는듯싶었다.

《이제 또 없는가?》 이때의 이수라들인 한명회, 권람 등이 수양대군(후남 조선봉건왕조의 제7대왕 세조)을 위해 살생계를 하며 묻는 말이였다.

조선봉건왕조가 선지 어언 60여년간, 왕자들사이의 권력쟁탈의 칼부림은 때때로 있었을망정 이렇듯 《살생부》까지 만들어놓고 명부에 접을 처가며 사람죽이기를 파리지 않지는 단 한번도 없었다.

한명회, 권람이라 하면 조정의 벼슬아치이건 평백성이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들도다가 치를 떨며 먹던 밥술도 내던지고 숨어버릴만큼 인간백정들이지라 이놈들에 대한 원성은 하늘명에 사무졌다.

이때로 말하면 수양대군이 옥좌에 오르기 전이였고 력사에 《사륙신》, 《생륙신》의 비화를 남긴것은 그가 등극한 이후에 있었던 일들이였다.

무슨 죄로 조정의 고골지신인 좌의정 김종서까지도 죽어야 하는가고 따지고드는 자기의 딸마저 사약을 내려 죽이려고 한 수양대군의 처사가 력사의 갈피에 참혹한 비화의 한페이지로 남을 정도였으니 이때의 평가가 과연 어떠하였는가 하는것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것이다.

반대파세력을 완전히

눈치를 보아가며 늦게야 글을 깨우치다나니 식자는 별반 든것이 없는데다가 조상의 그루터기조차도 시원치를 앓아 나이 중년을 바라보는 서른여덟살에야 겨우 궁지기라는 자리를 차지할수 있었다.

아이적에 팔사둥이라 놀림을 당하던 때가 언제일인데 별로 보잘것 없던 그의 벼슬이 나이 친살남

어느 하루는 수양대군이 그를 만나서 이렇게 말한적도 있었다.

《그대야말로 마고소양(마고라는 선녀의 손톱으로 가려운 곳을 긁으면 시원하다고 한데서 유래된 말) 짚먹었어.》

이렇게 말하는 수양대군앞에서 한명회는 열거에 허리를 굽혔다가 달아오르는 얼굴을 건사할

더라도 앞날의 상감님의 마음에 들었으니 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나!

어인 일인지 한명회가 하는 말은 껌하면 골내기를 잘하는 포악스러운 성격을 지닌 수양대군에게 불은 불에 키질하는 격으로 되여버리곤 하였다. 그럴 때마다 한명회는 신바람이 나서 안방, 건넌방 가림없이 드나들며 수양대군을 다 부리었다. 그러니 수양대군이 그를 두고 마고소양 짚먹었다고 한것이 한명회에게는 실상 적절한 표현이 아닐수 없었다.

한명회가 지금 이마뺨을 슬슬 문지르며 감개무량해하는것도 바로 한갓 궁지기에 불과했던 자신이 오늘은 나라의 인사권에 병권, 감찰권, 왕명출납권 등을 모두 거머쥔 최고관직에까지 바라오를수 있었던 자기의 그처럼 독수같이 수완에 자화자찬하고있음이였다.

한명회가 인왕산기슭의 네귀 번듯한 호화주택에서 태평세월을 보내는것을 응당한 일로 여기며 거

드름을 피울 때 그의 벼락출세에 침을 뱉고 등을 진 인물중의 하나가 바로 김시습이였다.

세살적에 능히 글을 알았고 다섯살적에 《신격》이라 불리운 그의 글재주를 아껴 조선봉건왕조의 4대왕이었던 세종은 그를 잘 키우라는 어명까지 내렸었다.

점차 성장하면서 시제로 두각을 나타낸 시습은 당시의 이름난 문인들이던 성삼문, 박팽년과도 벗으로 사귀게 되였다. 벗이라기보다 스승으로 삼았다.

그런데 그렇듯 따르고 존경하던 스승들이 하루아침에 목이 팔리우는 형벌을 받게 될줄이야. 가까운 스승들을 잃은 시습의 마음은 쓸쓸하기 그지없었다.

성삼문이 세상을 하직할 때 그의 나이는 서른여덟살이였고 시습의 나이는 스물한살이였다.

전도유망한 재사들이 하루아침에 참형을 당하게 되자 시습은 벼슬길을 단념하고 산속에 들어가 숨어버리고말았다.

